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13 CATO THE YOUNGER, ROME'S IRON MAN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Cato the Younger, Rome's Iron Man」 (원서 PDF 99~110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9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타협하지 않는 것은 미덕인가, 고집인가."

네 살의 카토는 발코니 밖에 거꾸로 매달리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어른이 된 그는 누구도 살 수 없는 한 표였고, 말하고 또 말해 부패한 계약과 법안을 막았으며, 끝내 카이사르의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 그 고집이 공화정을 지켰는지 무너뜨렸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다. 공부에도 타협의 유혹이 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며 해설부터 보고 답을 맞히면 마음은 잠깐 편하지만, 그 편안함은 금세 사라지고 실력의 빈자리는 오래 남는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2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정말 부끄러운 것만 부끄러워하라(103쪽 ¶6 ~ 104쪽 ¶2) / 발코니의 네 살(101쪽 ¶1) / 그의 성품이 기념비(109쪽 ¶9 ~ 110쪽 ¶4) /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은 명성(100쪽 ¶5) / 해야 할 일을 하되 공은 따지지 않는다(108쪽 ¶4~¶5)
4~5	**밑줄 함축 의미**	We can't all be Catos / cut from a different cloth / in the calm light of mild philosophy / buy the argument / when the mask will slip / Cato will not consent / among the dregs of Romulus / countersignals / the unstoppable force met the immovable object / by way of the women's apartments / No better friend, no worse enemy / Victory was not his to win / Now I am my own master / his finger points directly at us
6	지칭 추론	he·him이 Cato·Caepio 사이를 오가는 102쪽 ¶4~¶5 / he·him이 Cato·병사 사이를 오가는 101쪽 ¶1 / it = 스토아 철학(101쪽 ¶3) / that = 변론에서의 침묵(101쪽 ¶5) / The former·the latter(106쪽 인용) / it = 함대 지휘 임명(108쪽 ¶4)
7~8	내용 일치·불일치	검소한 생활 목록(103쪽 ¶4: 어두운 옷 · 맨발 · 걸음 · 무이자 · 참호) / 함대와 마지막 전쟁(108쪽 ¶3~¶9: 500척 · 며칠 만의 해임 · 48 BC 파르살루스 · 30일 행군 · 우티카) / 연도(95 · 195 · 155 · 72 · 68 · 67 · 63 · 55 · 52 · 49 · 48 · 46 BC) / 키프로스 7,000탈렌트 · 제논 동상(104쪽 ¶5)
9~10	**어법**	consist of · despite + 명사 · It was ~ who/that 강조 · not because A but because B · be better left p.p. · in that · the only + 명사 + who · one to V · 독립분사구문 · seem to have p.p. · dedication to + -ing · relish -ing · as if + 과거 · so as not to V · prefer to be rather than to seem · had not + S + p.p.(도치 가정) · should have p.p. — 9번은 군인 카토(102쪽 ¶1~¶3), 10번은 웅변 공부(101쪽 ¶5 ~ 102쪽 첫 줄)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stridently↔mildly · inexorable↔yielding · adhered to↔ignored · endemic↔rare · relish↔dread · extravagant↔plain · irreproachable↔questionable · inflexible↔fluid · resisted↔welcomed · intransigent↔flexible · undaunted↔discouraged · admiringly↔disparagingly — 11번은 필리버스터(105쪽 ¶5~¶6)
12	빈칸 추론	an iron constitution / not for his words, but for what he did / not because he was loved but because he was feared / rigid justice that will not bend / the only candidate / almost political cover / ashamed only of what was really shameful / not playacting ... practicing / commitment and compromise / to be, rather than merely to seem / the job that needs to be done / His character was the monument
13	문장 삽입	마지막 밤(109쪽 ¶4~¶7):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 사라진 칼 → 아들의 애원 · 아폴로니데스의 눈물 → 칼을 돌려받음 → 자기 자신의 주인 → 새벽의 칼 → 의사 / 형의 죽음(102쪽 ¶4~¶5)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4	무관한 문장	적의 없는 사람 · 매티스의 모토(107쪽 ¶2~¶3)에 해병대 이야기 끼워 넣기 / 검소한 생활 목록(103쪽 ¶4) / 키프로스 병합(104쪽 ¶5)
15	순서 배열	63 BC 평민 호민관 → 무레나 재판 → 카토의 논리 → 키케로의 논리(104쪽 ¶7 ~ 105쪽 ¶2) / 폼페이우스의 혼인 제안 → 거절 → 카이사르와의 동맹(106쪽 ¶2~¶4)
16	요약문 완성	카이사르 소환 요구와 루비콘(107쪽 ¶4 ~ 108쪽 ¶2) / 카이사르 대 카토(105쪽 ¶7 ~ 106쪽 ¶1) / 나폴레옹의 비판과 저자의 반론(109쪽 ¶9 ~ 110쪽 ¶2)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가 많은 장이다(95 · 195 · 155 · 72 · 68 · 67 · 63 · 55 · 52 · 49 · 48 · 46 BC). 인물도 많다(사르페돈 · 티레의 안티파트로스 · 카이피오 · 무나티우스 루푸스 · 무레나 · 살루스티우스 · 율리아 · 아폴로니데스 · 몽테뉴 · 나폴레옹).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dismissed ↔ accepted the marriage alliance, adhered to ↔ ignored the campaign laws, left unsold ↔ sold the statue of Zeno, admiringly(몽테뉴) ↔ disparagingly(나폴레옹)). 동사와 인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Cato the Younger, Rome's Iron Man」 (100~110쪽)

전기형(강철 체질 → 어린 시절 → 철학과 웅변 → 군인 → 형의 죽음 → 재무관과 검소한 삶 → 공공선 → 키케로와의 대비 → 필리버스터 → 카이사르와의 대비 → 폼페이우스와 삼두정치 → 루비콘과 내전 → 마지막 밤 → 평가). 핵심 축은 **원칙(commitment) vs 타협(compromise)**, 그리고 **보이는 것(seeming) vs 실제로 그런 것(being)**.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00 ¶1~¶3	도입	몇 세대, 몇 세기에 한 번 태어나는 강철 체질 / 신화와 전설 / "우리 모두가 카토일 수는 없다"
100 ¶4	가문	95 BC 출생 · 평민 출신이나 귀족층에 자리 잡은 집안 / 증조부 대 카토(195 BC 집정관 · 조상의 관습) / 아이러니: 증조부가 가장 격렬히 맞선 것이 철학(155 BC)
100 ¶5~¶6	인물 규정	카르네아데스 · 크리시포스가 아님 · 포세이도니오스와도 다른 재질 / 말이 아니라 행동과 인격으로 얻은 명성
100 ¶7	학창 시절	클레안테스 · 처칠처럼 신통치 않은 출발 / 스승 사르페돈: 순종 · 성실하나 '굼뜨고 느림' / 모든 과제에 이유를 요구
101 ¶1	발코니 일화	네 살 · 병사의 위협에 꿈쩍 않음 / 발코니 밖에 매달려도 말없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음 / 평생 이어질 의지 싸움의 예고
101 ¶2~¶4	정의감과 성미	약자를 지킴 / 술라: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 "왜 칼을 주지 않았나요" / '냉혹한' 성미 → 아마 그래서 스토아 입문 / 워싱턴 / 위대한 사람은 성미를 정복
101 ¶5 ~ 102 첫 줄	철학과 웅변	티레의 안티파트로스 / 철학과 웅변을 함께 / 루틸리우스와 달리 침묵하지 않음 / 말할 가치가 확실할 때만 말함 / 굽히지 않는 정의 · 살 수 없는 한 표
102 ¶1~¶3	군인	72 BC 스파르타쿠스에 맞선 제3차 노예 전쟁 자원 / 68 BC 27세 군사 호민관 · 바실리카 포르키아 / 선거법을 지킨 유일한 후보 / 3년 복무 · 평범한 병사처럼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02 ¶4 ~ 103 ¶1	형의 죽음	67 BC 카이피오의 병 / 거친 바다를 건너 트라키아 → 몇 시간 차이로 임종을 놓침 / 거의 절제 없는 슬픔 · 소니와 굿맨 · 플루타르코스 / 선물 사양 · 장례비 직접 부담
103 ¶2~¶3	재무관	30세 재무관 · 첫 원로원 입성 / 국고 정비 · 부패한 서기 축출 · 빚 떼먹는 사람 추적 /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 카틸리나와 권력자들의 적의
103 ¶4 ~ 104 첫 줄	검소한 삶	자주색 대신 어두운 옷 · 맨발 · 걸음 · 무이자 · 호위 거절 · 참호 / 키케로: 플라톤의 『국가』에 사는 듯 / 선택이 만든 갑옷 / 정말 부끄러운 것만 부끄러워함
104 ¶1~¶3	교훈	군중에 맞추면 약해진다 · 대가도 없이 팔림 / 아리스토의 무관심을 가장 적극 실천 · 스파르타식 삶 / 선행의 결과는 남고 쾌락은 사라진다
104 ¶4~¶6	공공선	디오게네스에서 시작된 전통 — 나라를 위한 봉사 / 키프로스 병합: 약 7,000탈렌트 · 제논 동상만 남김 · 무나티우스 루푸스와 절교 / 연기가 아니라 훈련
104 ¶7 ~ 105 ¶4	키케로와의 대비	63 BC 평민 호민관 · 카틸리나 음모자 사형 요구에 함께 / 무레나 재판: 기소하는 카토 vs 변호하는 키케로 / 옳은 것은 옳다 vs 국가의 안정 / 헌신은 어디서 고집이 되는가
105 ¶5~¶6	필리버스터	어린 시절의 저항 → 정치의 끈기 / 말하고 또 말해 부패한 계약 · 법안 저지 / 필요한 변화에도 저항 · 남들에게도 일방적 행동을 부추김 / 카이사르가 그를 투옥
105 ¶7 ~ 106 ¶1	카이사르 대비	공화주의 vs 카이사르주의 / 살루스티우스: 베풂 · 용서의 카이사르 vs 엄격 · 올곧음의 카토 / 멈출 수 없는 힘과 움직일 수 없는 물체
106 ¶2 ~ 107 ¶3	폼페이우스와 삼두정치	혼인 동맹 거절 →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와 손잡음(율리아) / 플루타르코스의 비판 / 삼두정치에 맞선 가시(55 BC) / 세네카 인용 / 원한 없는 사람 · 매티스
107 ¶4 ~ 108 ¶9	루비콘에서 우티카까지	52 BC 집정관 낙선 → 카이사르 소환 요구 / 49 BC 루비콘 · 내전 / 타협 = 도덕적 항복 / 함대 지휘권 해임에도 원망 없음 / 48 BC 파르살루스 → 30일 사막 행군 → 우티카
109 ¶1 ~ 110 ¶4	마지막 밤과 평가	철학이 오간 마지막 만찬 /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 자기 자신의 주인 / 49세의 죽음 / 몽테뉴의 찬사 vs 나폴레옹의 혹평 / 그의 성품이 기념비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명성의 근거	말과 글(거의 모든 스토아 — 카르네아데스 · 크리시포스 · 포세이도니오스)	행동과 인격(카토)
힘 앞의 태도	병사의 위협 · 발코니에 매달기(물리적 힘)	말없이 꿈쩍 않는 저항(quiet, unbreakable defiance)
술라가 받은 경의	사랑받아서(겉으로 보이는 인기)	두려움 때문에(사르페돈의 설명)
말하기	변론에서도 침묵(루틸리우스)	말할 가치가 확실할 때만, 그러나 강력하게(카토)
선거 운동	"남들도 다 한다" — 만연한 부정	선거법을 지킨 유일한 후보
옷차림과 생활	화려한 자주색 옷 · 말 · 연회 · 호위	수수한 어두운 옷 · 맨발 · 걸음 · 참호
무엇을 부끄러워하나	남들의 낮은 평가 · 군중과 다름	정말로 부끄러운 것만(플루타르코스)
무레나 재판	변호하는 키케로 — 국가의 안정 · 덜한 악의 선택(compromise)	기소하는 카토 — 옳은 것은 옳다(commitment)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카이사르 vs 카토	베풂 · 용서 · 너그러움 · 권력과 변화(카이사르주의)	엄격 · 절제 · 올곧음 · 옛 질서(공화주의)
되고 싶은 것	덕 있어 보이는 것(to seem)	실제로 덕 있는 것(to be) — 명성은 따라옴
고집의 결과	폼페이우스를 카이사르 쪽으로 · 공화정의 파멸을 앞당겼을지도(may have hastened)	남들이 진작 그었어야 할 선을 그음(perhaps)
카토의 죽음	위대한 영혼의 약함 · 삶의 오점(나폴레옹)	폭군의 얼굴을 보느니 죽음(몽테뉴) · 세대를 넘는 영감(저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Marcus Porcius Cato	B. 95 BC – D. 46 BC · 로마 출신 · 발음 KAY-toe · 소(小) 카토(Cato the Younger) · 로마의 강철 인간 · 로마의 마지막 시민(110쪽 ¶4) / 그의 시대의 흔한 말: "우리 모두가 카토일 수는 없다"
집안	초기에는 **평민**(plebeian) 출신 · 그가 태어날 무렵에는 로마 귀족층에 굳게 자리 잡음 · 이 평민 뿌리 덕에 뒤에 평민 호민관 자격(104쪽 ¶7)
Cato the Elder	증조부 · 군사 호민관 → 재무관 · 조영관 · 법무관 → **195 BC** 집정관 · 농업으로 재산 · 조상의 관습(mos maiorum) 수호 · **155 BC** 디오게네스 사절단의 철학자들을 쫓아내려 함 · 바실리카 포르키아를 지음
비교 인물	카르네아데스 · 크리시포스가 **아님**(영리한 변증술 없음) · 천재 포세이도니오스와도 다른 재질 / 학창 시절은 클레안테스 · 윈스턴 처칠처럼 신통치 않음
Sarpedon	스승(가정교사) · 순종적이고 성실하나 "이해가 굼뜨고 느리다" · 이유를 묻는 태도를 북돋움 · 술라에 대한 설명 · **아마(likely)** 그의 격렬한 성미 때문에 스토아를 소개
발코니 일화	전하는 이야기 · 시민권 문제로 찾아온 힘센 병사 · 후견인이자 평민 호민관이던 **삼촌** · 카토 **네 살** · 발을 잡혀 발코니 밖에 매달림 · 말없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음
Sulla	그의 집에 사람이 몰린 이유 =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사르페돈) → "그럼 왜 제게 칼을 주지 않으셨어요, 조국을 노예 상태에서 구하게"
Plutarch	성미 = "냉혹한(inexorable)" · "대중을 움직이는 연설" · "관용에도 호의에도 굽히지 않는 엄격한 정의" · 재무관의 엄격함이 동료의 방패 · 원한을 모름 · 함대 지휘권을 원망 없이 넘김 · "운명과 힘겨운 승부"
George Washington	카토에 관한 **연극**에서 영감을 얻고 사실상 베낌 · "온화한 철학의 고요한 빛 속에서" · 같은 불같은 성미를 단단한 기질 아래 둠
Antipater of Tyre	스토아의 기초를 가르친 스승 — 7장의 **타르소스**의 안티파트로스와 다른 인물 · 카토는 철학과 함께 **웅변**도 공부 · 루틸리우스 루푸스(변론에서 침묵)와 달리 침묵하지 않음
72 BC	스파르타쿠스에 맞선 **제3차 노예 전쟁**에 자원 · 남을 대신 복무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 철학자를 만드는 것은 행동과 희생
68 BC / 27세	**군사 호민관** 출마(아버지도 지낸 자리) · 선거법을 지킨 **유일한** 후보 · 이후 **3년** 동안 제국 각지에서 복무 · 평범한 병사처럼 처신
67 BC / Caepio	사랑하는 형 · 사치와 향수 · 작은 배로 거친 바다 · **트라키아** 도착, **몇 시간** 차이로 임종 놓침 · 전기 작가 소니와 굿맨 · 유산은 카이피오의 **딸**에게 공제 없이 · 장례비는 카토 부담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30세 / quaestor	**재무관** = 첫 원로원 입성 · 국고 정비 · 부패한 서기 축출 · 술라의 공권 박탈로 생긴 부당 이득 · 빚 떼먹는 사람 추적 ·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 카틸리나와 대립
생활	자주색 대신 수수한 **어두운** 옷 · 향수 X · **맨발** · 말 대신 걸음 · 회기 중 로마를 떠나지 않음 · 무이자 대출 · 호위 거절 · 참호에서 잠 / 키케로: "로물루스의 찌꺼기"가 아니라 플라톤의 『국가』
Aristo / Diogenes	아리스토의 '덕 외의 모든 것에 무관심'을 스토아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 · 스파르타식 삶 / 디오게네스에서 시작된 전통 = 공공선에 봉사
Cyprus	병합 감독 · 흠잡을 데 없는 처리 · 약 **7,000탈렌트** · 팔지 않은 유일한 것 = **제논**의 동상 · 잃은 것 = 무나티우스 루푸스와의 우정
63 BC / Murena	**평민 호민관** · 집정관 = 키케로 · 카틸리나 음모자 사형 요구에 함께 / 무레나 = 제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의 장교 · 뇌물로 공직 · 키케로 = **변호**(『무레나 변론』), 카토 = **기소**
filibuster	카토가 개척 · 지금도 쓰임 · 부패한 쪽으로 가는 세금 징수 계약과 옛 정신을 어기는 법 저지 / 필요한 변화에도 저항 / 집정관 카이사르가 그를 **투옥**
Sallust	카이사르 **지지자**인 역사가 · 혈통 · 나이 · 웅변은 거의 같음 · 카이사르 = 베풂 · 너그러움 · 용서 / 카토 = 올곧음 · 엄격 · 절제 · 덕 있어 보이기보다 덕 있기를
Pompey / Julia	조카딸 또는 딸과의 혼인 동맹 제안(**전해짐**) · 무례한 거절 → 카이사르가 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와 결혼시킴 · 삼두정치(+ 크라수스) · 55 BC 공동 집정관 선거 · 갈리아 전쟁 범죄 고발
Seneca / Mattis	세네카: 세 사람이 나눠도 채워지지 않는 권력욕에 홀로 맞섬 · "모든 시대가 카토 같은 사람을 낳지는 않는다" / 매티스 장군 = 제1해병사단 모토 "더 좋은 친구도, 더 나쁜 적도 없다"
52 · 49 · 48 BC	52 BC 집정관 낙선 → 카이사르 소환 요구 / 49 BC 루비콘 · **제13군단** / 함대 **500척** 이상 → 며칠 만에 해임 / 48 BC 파르살루스(그리스 중부) → 북아프리카 · **30일** 사막 행군 · **우티카**
마지막 밤	아들에게 배로 피하라고 설득하려 함 · 많은 친구를 피신시킴 · 철학이 오간 만찬 ·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 치워진 칼(아마 친구) · 스토아 철학자 **아폴로니데스** · "이제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 **49세**
Montaigne / Napoleon	몽테뉴 = 찬사("폭군의 얼굴을 보느니 죽어야 했다") / 나폴레옹 = 혹평(영웅의 전당에 흉상을 두었던 사람 · "위대한 영혼의 약함, 스토아의 실수, 삶의 오점") · 워싱턴 · 토머스 페인과 대비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Cato the Younger, Rome's Iron Man」 (원서 PDF 100~110쪽) · 9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3-1 강철 체질, 말이 아니라 삶으로 100쪽 ¶1 ~ 101쪽 ¶1

원문 위치 원서 100쪽 ¶1 ~ 101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0쪽 ¶1 첫 문장	an iron constitution that consists of harder stuff	제목 'Iron Man'의 출발 · 빈칸 후보
▲	100쪽 ¶1 첫 문장	consists of harder stuff than even his hardiest peers	consist of(수동 불가) + than even
◆	100쪽 ¶3 둘째 문장	"We can't all be Catos."	밑줄 의미: 아무나 카토가 될 수는 없다
▲	100쪽 ¶4 둘째 문장	a family that, despite its early plebeian origins, was, by his birth, firmly entrenched	관계절 속 삽입구 둘 + 단수 동사
★	100쪽 ¶4 둘째·셋째 문장	95 BC / 195 BC	숫자 — 출생 vs 증조부의 집정관
▲	100쪽 ¶4 셋째 문장	all the while earning a fortune … and making his name fighting	all the while + 분사 병렬
●	100쪽 ¶4 넷째 문장	fought most stridently against	반전 후보 → embraced
▲	100쪽 ¶4 다섯째 문장	It was he, after all, who had wanted to throw	강조구문 + 과거완료
▲	100쪽 ¶5 첫 문장	How perfect it was that	감탄문 + 가주어 it
◆	100쪽 ¶5 셋째 문장	He was cut from a different cloth	밑줄 의미 1순위
★	100쪽 ¶5 다섯째 문장	not for his words, but for what he did and for who he was	요지·빈칸 1순위
▲	100쪽 ¶7 셋째 문장	what Cato did understand stuck in his mind like it had been carved	강조 did + 명사절 주어 + like(= as if)
▲	100쪽 ¶7 다섯째 문장	chose to encourage … rather than beat it out of	rather than + 원형
★	101쪽 ¶1 다섯째 문장	only four years old	숫자 — 서답형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1쪽 ¶1 일곱째 문장	if Rome were filled with such men he'd never convince anyone	가정법 과거(간접화법)
◆	101쪽 ¶1 여덟째 문장	a preview of the lengths his frustrated opponents would be forced to go to	밑줄 의미: 적들이 감수할 극단의 예고

내용

몇 세대, 어쩌면 몇 세기에 한 번, 가장 강인한 동료들보다도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진 강철 체질의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인물은 신화와 전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그런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묻는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카토일 수는 없다"는 말이 흔했다. 이 탁월함은 거의 핏줄에 있었다. 그는 기원전 95년, 처음에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그가 태어날 무렵에는 로마 귀족층에 굳게 자리 잡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증조부 대 카토는 군사 호민관으로 출발해 재무관, 조영관, 법무관을 거쳐 기원전 195년 집정관에 올랐고, 그동안 농업으로 재산을 모으며 떠오르는 제국의 근대화 바람에 맞서 조상의 관습(mos maiorum)을 지키는 싸움으로 이름을 떨쳤다. 아이러니하게도 증조부가 보수적 열의로 가장 격렬하게 맞선 것이 카토에게 가장 중요했던 철학이었다. 기원전 155년 디오게네스 사절단의 아테네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내쫓으려 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러니 소(小) 카토라 불린 증손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된 것은 절묘하다. 다만 그는 카르네아데스나 크리시포스 같은 철학자가 아니었고, 영리한 변증술과도 거리가 멀었으며, 천재 포세이도니오스와도 재질이 달랐다. 그 이전과 이후의 스토아는 거의 모두 말과 글로 이름을 얻었지만, 카토만은 그가 한 일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로 우뚝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오직 자기 삶이라는 지면에 신념을 영원한 기념비로 새겼다. 처음부터 그럴 줄 알기는 어려웠다. 클레안테스나 처칠처럼 그의 학창 시절은 신통치 않았다. 스승 사르페돈은 그를 순종적이고 성실하지만 "이해가 굼뜨고 느리다"고 보았다. 그래도 일단 이해한 것은 돌에 새긴 듯 머리에 남았고, 행실이 아니라 고압적이고 강렬한 태도로 수업을 흔들며 맡은 모든 과제에 이유를 요구했다. 다행히 스승은 이 논리에 대한 집착을 때려서 없애는 대신 북돋웠다. 어차피 물리적 힘은 그에게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시민권 문제로 그의 집을 찾은 힘센 병사가 후견인이자 평민 호민관이던 삼촌에게 자기 일을 말해 달라고 했지만 카토는 무시했다. 네 살배기 카토는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고 마주 보았고, 병사가 그의 발을 잡아 발코니 밖에 매달았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없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병사는 졌음을 깨닫고 아이를 내려놓으며, 로마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아무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 이어질 정치적 의지 싸움의 첫 판이자, 그를 이기려는 적들이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미리 보여 준 일이었다.

어법

- **a man is born with an iron constitution that consists of harder stuff than even his hardiest peers** : consist of = ~로 이루어지다(자동사구라 수동태 불가 → is consisted of는 오답).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constitution). than even ~ = 가장 강인한 동료들보다도(even이 비교 대상을 강조).
- **He was born in 95 BC to a family that, despite its early plebeian origins, was, by his birth, firmly entrenched in Rome's aristocracy** : 관계절 주어 that(= a family) 뒤에 despite ~ · by his birth가 끼어 있고 동사는 단수 was. despite는 전치사라 뒤에 명사구(변형 → despite of는 오답, 절을 쓰려면 although).
- **Ironically, the one influence most important to Cato that his great-grandfather fought most stridently against with his conservative zeal was philosophy** : 주어 the one influence를 형용사구(most important to Cato)와 목적격 관계대명사절(that ~ fought against)이 함께 꾸민다. against의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전치사만 남았다. 주어가 단수 → was.
- **It was he, after all, who had wanted to throw the Athenian philosophers from Diogenes's diplomatic mission out of Rome in 155 BC** : It was ~ who 강조구문(주어 he 강조 — 주격이라 he). had wanted = 소 카토의 이야기 시점보다 앞선 일(155 BC). throw A out of B = A를 B에서 쫓아내다.

- **Alone among them, Cato would achieve towering fame not for his words, but for what he did and for who he was** : not A but B(A가 아니라 B). what he did = 관계대명사 what절(그가 한 일), who he was = 간접의문문(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 **There were flashes of brilliance—what Cato did understand stuck in his mind like it had been carved into stone** : did understand = 강조의 do. what ~ understand가 명사절 주어 → 동사 stuck(stick-stuck-stuck). like = as if(구어). had been carved = 과거완료 수동(새겨'진' 것).
- **the soldier, realizing he had been beaten, set the boy down, saying that if Rome were filled with such men he'd never convince anyone** : realizing · saying = 분사구문(주어 the soldier). set(과거형도 set) A down. that절은 가정법 과거(if + were, 주절 would + 원형)를 간접화법으로 옮긴 것.
- **a preview of the lengths his frustrated opponents would be forced to go to if they were ever to best him** : go to great lengths(무슨 짓이든 하다)에서 나온 표현: the lengths 뒤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되고 전치사 to가 끝에 남았다. if + 주어 + were to V = ~하려면(의도·가정). best = 이기다(동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stitution	체질, 기질	physique, temperament	—
hardy	강인한	tough, robust	frail
plebeian	평민의	common	aristocratic
entrenched	굳게 자리 잡은	established	—
ascendant	떠오르는, 융성하는	rising	declining
stridently	격렬하게	vehemently	mildly
zeal	열의, 열성	fervor	apathy
towering	우뚝한, 뛰어난	outstanding	modest
underwhelming	신통치 않은	disappointing	impressive
sluggish	굼뜬	slow	quick
imperious	고압적인	domineering	humble
deference	존중, 공손	respect	disrespect
unmoved	꿈쩍하지 않는	unshaken	shaken

내용 일치 출생 = 기원전 95년 · 집안은 처음에 평민 출신, 그가 태어날 무렵 귀족층 · 증조부 대 카토 = 195 BC 집정관, 농업으로 재산, 조상의 관습 수호, 155 BC 아테네 철학자 추방 시도 · 명성의 근거 = 말이 아니라 행동과 인격 · 스승 사르페돈: 순종 · 성실, 그러나 '굼뜨고 느림' · 발코니 일화 = '전하는 이야기', 그때 네 살. **밑줄 의미** cut from a different cloth = 말과 글로 이름난 다른 스토아와 근본부터 다른 사람(행동과 인격의 철학자) / a preview of the lengths ~ = 그를 꺾으려는 적들이 앞으로 얼마나 극단적인 수단까지 써야 할지 미리 보여 줌.

> **한 줄 요약**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름을 남길 소 카토는 철학을 미워한 증조부의 핏줄에서 태어났고, 네 살 때부터 위협에 꿈쩍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였다.

13-2 분노를 정의로, 살 수 없는 한 표 101쪽 ¶2 ~ 102쪽 ¶1

원문 위치 원서 101쪽 ¶2 ~ 102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1쪽 ¶2 첫 문장	It was clear that beneath this determination, there was also	가주어 it + that절 속 부사구 + there was
▲	101쪽 ¶2 셋째 문장	asked his tutor why so many people were there paying homage	간접의문문 어순 → 대시 뒤 직접의문문
★	101쪽 ¶2 넷째 문장	not because he was loved but because he was feared	빈칸 후보 · 지칭: he = Sulla
▲	101쪽 ¶3 첫 문장	It was likely this intensity … that led Sarpedon to introduce	강조구문 + likely(추정)
●	101쪽 ¶3 첫 문장	"inexorable"	반전 후보 → yielding
◆	101쪽 ¶3 첫 문장	hoping that it would help	지칭: it = Stoicism
▲	101쪽 ¶3 둘째 문장	inspired by and in fact cribbing from a play about Cato	과거분사 · 현재분사가 목적어 공유
◆	101쪽 ¶3 둘째 문장	"in the calm light of mild philosophy"	밑줄 의미: 철학으로 다스린 평정
▲	101쪽 ¶4 둘째 문장	It's the truly great ones who … with which they deal with	강조구문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101쪽 ¶5 첫 문장	Antipater of Tyre	인물 — 7장의 안티파트로스와 혼동 주의
◆	101쪽 ¶5 셋째 문장	that would never be Cato's way	지칭: that = 변론에서의 침묵
▲	101쪽 ¶6	only when I'm certain what I'll say isn't better left unsaid	명사절 주어 + be better left p.p.
★	102쪽 첫 줄	rigid justice that will not bend to clemency or favor	빈칸·요약 후보
▲	102쪽 첫 줄	Armed with …, Cato would become … in that all knew	과거분사 분사구문 + in that
★	102쪽 ¶1 둘째 문장	In 72 BC … the Third Servile War, against Spartacus	숫자·사건 — 내용 일치 후보
▲	102쪽 ¶1 넷째 문장	it was the actions one took, the sacrifices one was willing to make … that made you	강조구문 + 관계사 생략

내용

그 결의 밑에는 정의와 자유에 대한 강렬하고 거의 급진적인 헌신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 놀이에서도 괴롭힘을 참지 않고, 나이 많은 아이들로부터 어린아이들을 지켜 주곤 했다. 한번은 술라의 집에 다녀온 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경의를 표하고 호의를 바치는지, 술라가 정말 그토록 인기가 있는지 스승에게 물었다. 사르페돈은 술라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카토는 "그럼 왜 제게 칼을 주지 않으셨어요? 조국을 노예 상태에서 구할 수 있게요!"라고 말했다. 아마 이 격렬함과, 플루타르코스가 "냉혹하다"고 묘사한 성미 때문에 사르페돈은 그에게 스토아 철학을 소개했을 것이다. 그것이 소년의 분노와 정의감을 올바르게 쏟게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수세기 뒤 조지 워싱턴은 카토에 관한 연극에서 영감을 얻고 사실상 그것을 베껴, 정치의 음모와 삶의 어려움을 "온화한 철학의 고요한 빛 속에서" 보는 데 필요한 노력을 자주 이야기했다. 같은 불같은 성미를 타고난 워싱턴은 단단한 기질 아래 열정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알았다. 의지가 강한 지도자는 대개 성미가 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삶의 모든 장애물을 다룰 때와 같은 용기와 절제로 그 성미를 정복한다. 카토는 티레의 안티파트로스에게서 스토아의 기초를 배웠다. 그러나 당시의 많은 스토아와 달리 철학뿐 아니라 웅변도 공부했다. 루틸리우스 루푸스는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서 침묵했지만, 그것은 결코 카토의 방식이 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는 신중함과 직설로 증조부를 자랑스럽게 했다. "나는 할 말이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은 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만 말을 시작한다"고 그는 말했다. 침묵을 깨기로 할 때 그는 설득력이 있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는 대중을 움직이는 연설을 했고, 사르페돈을 겁먹게 했던 분노는 스토아 철학과 수사학 훈련을 거쳐 정의를 위한 맹렬한 옹호로 바뀌어 그의 인격과 정치를 규정하는 특징이 되었다. 그는 "무엇보다 관용에도 호의에도 굽히지 않는 엄격한 정의"를 추구했다. 단호하고 두려움 없는 성품, 스토아의 윤리 원칙, 강력한 연설 실력을 갖춘 카토는 만만찮은 정치인이 되었고, 그의 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는 점에서 드문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 이름을 얻기 전에 그는 군인이었다. 기원전 72년 그는 스파르타쿠스에 맞선 제3차 노예 전쟁에 자원했다. 남에게 대신 복무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카토에게 철학자를 만드는 것은 행동, 특히 조국을 지키려 무기를 드는 희생이었고, 그는 모든 시민이 그래야 한다고 믿은 대로 두려움 없이 헌신했다.

어법

- **Cato asked his tutor why so many people were there paying homage and offering favors—was Sulla really this popular?** : why가 이끄는 간접의문문은 평서문 어순(why + 주어 + 동사). 대시 뒤에서는 소년의 속마음을 직접의문문(was + 주어)으로 옮겼다. paying · offering = '~하면서'의 분사.
- **Sarpedon explained that Sulla received these honors not because he was loved but because he was feared** : not because A but because B =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was loved · was feared = 수동(사랑'받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다'). he = Sulla.
- **It was likely this intensity—and a temper that Plutarch described as "inexorable"—that led Sarpedon to introduce Cato to Stoicism** : It was ~ that 강조구문(주어 강조). likely = 아마(저자의 추정이지 기록이 아님). lead + O + to V. describe A as B = A를 B라고 묘사하다.
- **It's the truly great ones who manage to conquer it with the same courage and control with which they deal with all of life's obstacles** : It is ~ who 강조구문. with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they deal with obstacles with courage에서 with courage가 앞으로). which만 쓰면 수단의 with가 빠져 비문이 된다.
- **"I begin to speak," Cato once explained, "only when I'm certain what I'll say isn't better left unsaid."** : certain 뒤 that 생략. what I'll say = 명사절 주어(내가 할 말) → 단수 isn't. be better left unsaid = 말하지 않은 채 두는 편이 낫다(leave + O + 과거분사의 수동).
- **The rage and fury that had frightened Sarpedon was channeled through his training in Stoic philosophy and rhetoric into a fierce advocacy for justice** : channel A into B(A를 B로 돌리다)의 수동. rage and fury를 한 덩어리의 감정으로 보아 단수 동사 was를 썼다. had frightened = 대과거(어린 시절).
- **Armed with a resolute and fearless character, Stoic ethical principles, and a powerful proficiency in public speaking, Cato would become a formidable political figure—and a rare one, in that all knew his vote could never be bought** : 과거분사 분사구문(= Because he was armed with ~). one = a political figure. in that = ~라는 점에서. could never be bought = 조동사 + 수동.

- **it was the actions one took, the sacrifices one was willing to make—especially at arms defending one's country—that made you a philosopher** : It was ~ that 강조구문(강조되는 주어 = actions · sacrifices). one took / one was willing to make = 목적격 관계사 생략. one · you = 일반 주어.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iberty	자유	freedom	slavery
bullying	괴롭힘	intimidation	—
pay homage	경의를 표하다	honor, revere	insult
inexorable	냉혹한, 굽히지 않는	relentless	yielding
righteousness	정의감, 올바름	virtue	wickedness
crib (from)	베끼다	copy	—
subsume	아래에 두다, 포섭하다	absorb, incorporate	—
circumspection	신중함	caution	recklessness
bluntness	직설, 무뚝뚝함	frankness	tact
compelling	설득력 있는	persuasive	unconvincing
clemency	관용, 자비	mercy	severity
formidable	만만찮은	daunting	feeble
unconscionable	용납할 수 없는	unacceptable	acceptable

내용 일치 술라가 경의를 받은 이유 =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사르페돈의 설명) · 스토아 입문의 계기 = 아마(likely) 격렬함과 '냉혹한' 성미 · 워싱턴은 카토에 관한 '연극'에서 영감 · 스승 = 티레의 안티파트로스 · 철학과 웅변을 함께 공부(당시의 많은 스토아와 달리) · 매수할 수 없는 표 · 72 BC 제3차 노예 전쟁(스파르타쿠스)에 자원. **지칭** 101쪽 ¶2 넷째 문장 he was loved의 he = Sulla, 다섯째 문장 he said = Cato / ¶3 it would help = Stoicism / ¶4 conquer it = a temper / ¶5 that would never be Cato's way = 변론에서 침묵한 일 / 102쪽 첫 줄 a rare one = 드문 정치인.

> **한 줄 요약** 격렬한 정의감과 냉혹한 성미를 스토아 철학과 웅변 훈련으로 다스린 카토는, 표를 살 수 없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먼저 전쟁에 자원한 군인이었다.

13-3 법을 지킨 유일한 후보, 형을 잃은 날 102쪽 ¶2 ~ 103쪽 ¶1

원문 위치 원서 102쪽 ¶2 ~ 103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2쪽 ¶2 첫 문장	Fresh from this crucible, he was ready … to stand for	형용사구 문두 + be ready to V
★	102쪽 ¶2 첫 문장	in 68 BC, at age twenty-seven … military tribune	숫자·직책 — 서답형 후보
▲	102쪽 ¶2 첫 문장	the same position his father had served in before him	관계사 생략 + 전치사 잔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2쪽 ¶2 둘째 문장	the Basilica Porcia ... named after its builder, his great-grandfather	내용 일치 후보
▲	102쪽 ¶2 셋째 문장	what he felt was proper	what + 삽입절 + 동사
●	102쪽 ¶2 셋째 문장	the only candidate who actually adhered to	반전 후보 → ignored
◆	102쪽 ¶2 넷째 문장	never one to buy the argument	밑줄 의미: buy = 받아들이다
▲	102쪽 ¶3 첫 문장	That included the troops he led ..., exposing him to the provinces	That = 마음을 얻은 사람들 / 분사구문
●	102쪽 ¶3 둘째 문장	might soften the man ... but they were mistaken	반전 후보 → harden
▲	102쪽 ¶4 셋째 문장	Caepio favoring luxuries ... that Cato would have never allowed himself	독립분사구문 + would have p.p.
◆	102쪽 ¶4 다섯째 문장	hearing that he was near death, rushed to his side	지칭: he · his = Caepio / him = Cato
▲	102쪽 ¶5 둘째 문장	landed in Thrace ... to discover that he had missed, by hours	결과의 to부정사 + 대과거
◆	102쪽 ¶5 넷째 문장	when the mask will slip	밑줄 의미: 평정의 가면이 벗겨질 때
▲	103쪽 첫 줄	Historians too seem to have overlooked how ... might have hardened	seem to have p.p. / might have p.p.
★	103쪽 ¶1 셋째 문장	without a penny deducted for funeral costs	without + O + p.p. · 내용 일치 후보

내용

이 시련을 막 거친 그는 기원전 68년, 스물일곱 살에 군사 호민관에 출마했다. 아버지가 앞서 지낸 자리였다. 호민관들이 업무를 보던 공회장인 바실리카 포르키아도 그것을 지은 증조부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이 유산에 대한 존경으로 가득하고 늘 옳다고 여기는 것에 깊이 헌신했던 카토는, 선거 운동 제한과 선거법을 실제로 지킨 유일한 후보였다. 로마에 부패가 만연했을지는 몰라도, 그는 "남들도 다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전략은 그에게 존경을, 적어도 남다른 존재감을 안겼다.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엄격한 신념과 그 신념에 섞인 성품이 엄격함에 미소 띤 너그러움을 더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전한다. 그 마음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후 3년 동안 그가 제국 곳곳을 다니며 이끈 병사들도 있었다. 이국의 속주를 다니면 그가, 혹은 자신을 다잡는 강철 같은 손아귀가 느슨해지리라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틀렸다. 그가 그토록 사랑받은 이유 중 하나는 평범한 병사처럼 처신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거창한 모험이던 전쟁은 곧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기원전 67년, 사랑하는 형 카이피오가 병들었다는 편지가 왔다. 카이피오는 카토라면 스스로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사치와 향수를 좋아해 둘은 늘 달랐지만, 형제라면 때로 눈감아 주는 법이다. 카토는 그 이상이었다. 형을 우상처럼 따랐던 그는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태워 주겠다고 설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장의 작은 배를 타고 목숨을 잃을 뻔한 거친 바다를 건너 달려갔다. 그러나 삶은 공정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나 계획을 거의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철학의 책에서 수없이 읽은 지혜였지만, 위험한 항해 끝에 트라키아에 도착한 그는 몇 시간 차이로 형의 임종을 놓쳤음을 알았다. 그는 거의 절제 없이 슬퍼했다. 전기 작가 지미

소니와 롭 굿맨은 가면이 벗겨지고 결의가 무너지고 애착이 우리를 이기는 때가 있다고 썼다. 그러나 카토의 시대에 훨씬 가까웠던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슬픔에서 모순을 찾는 사람들은 그의 완고함과 굳셈에 다정함과 애정이 얼마나 섞여 있었는지를 놓쳤다고 보았다. 역사가들 역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부모를, 이어서 아끼던 형을 잃은 일이 이미 단단한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간과한 듯하다. 적어도 그 일이 그의 청렴과 이상을 무르게 하지는 않았다. 슬픔 속에서도 그는 친구들이 장례식에 보낸 값비싼 선물을 정중히 사양하고, 향과 장식품으로 보낸 것은 제 돈으로 갚았다. 유산은 장례비 한 푼 떼지 않고 카이피오의 딸에게 갔고, 비용은 카토가 직접 치렀다.

어법

- **he was ready in 68 BC, at age twenty-seven, to stand for military tribune—the same position his father had served in before him** : be ready to V. stand for = (선거에) 출마하다. the same position 뒤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되고 전치사 in이 끝에 남았다(serve in a position). had served = 과거완료.
- **Pregnant with respect for this legacy and always deeply committed to what he felt was proper, Cato would be the only candidate who actually adhered to the canvassing restrictions and campaign laws** : 형용사구 둘이 문두에서 이유를 나타낸다(being 생략). what he felt was proper = what(주어) + 삽입절 he felt + was. the only + 명사 + who.
- **Cato was never one to buy the argument that "everyone else is doing it."** : one to V = ~할 사람. buy = (주장을) 받아들이다(구어). the argument that = 동격 that(argument의 내용).
- **Caepio favoring luxuries and perfumes that Cato would have never allowed himself** : 의미상 주어 Caepio가 남은 독립분사구문(= as Caepio favored ~). would have p.p. = (카토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것. allow oneself + 명사 = 스스로에게 ~을 허락하다.
- **he idolized Caepio and, hearing that he was near death, rushed to his side, braving wild and dangerous seas that nearly killed him** : idolized · rushed가 병렬이고 hearing ~이 사이에 끼었다. braving = 분사구문. he · his = Caepio, him = Cato.
- **he landed in Thrace after a perilous journey to discover that he had missed, by hours, his brother's death** : 결과의 to부정사(도착해 보니 ~임을 알게 되었다). had missed = 대과거. by hours = 몇 시간 차이로(차이의 by).
- **Historians too seem to have overlooked how the loss of his parents and then his cherished brother—without an opportunity to say goodbye—might have hardened an already hard man** : seem to have p.p. = ~했던 것 같다(완료부정사 = 현재보다 앞선 일). how절 = overlooked의 목적어. might have p.p. = ~했을지도 모른다(저자의 추정).
- **The inheritance went to Caepio's daughter without a penny deducted for funeral costs** : without + O + 과거분사 = O가 ~되지 않은 채(한 푼도 '공제되지' 않고).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rucible	혹독한 시련	ordeal	—
stand for	(선거에) 출마하다	run for	—
adhere to	지키다, 고수하다	observe, abide by	violate
canvassing	선거 운동	campaigning	—
endemic	만연한	widespread, rampant	rare
austerity	엄격함, 간소함	strictness	indulgence
graciousness	너그러움, 상냥함	kindness	rudenes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xotic	이국적인	foreign	native
idolize	우상처럼 떠받들다	adore	despise
brave (v.)	무릅쓰다	face, defy	avoid
perilous	위험한	dangerous	safe
restraint	절제	self-control	excess
inconsistency	모순, 일관성 없음	contradiction	consistency

내용 일치 68 BC · 27세 · 군사 호민관(아버지도 지낸 자리) · 바실리카 포르키아를 지은 사람 = 증조부 · 선거법을 지킨 '유일한' 후보 · 3년 동안 제국 각지 복무 · 67 BC 형 카이피오의 병 · 도착지 = 트라키아, 몇 시간 차이로 임종을 놓침 · '가면이 벗겨지는 때' = 소니와 굿맨 · 유산 = 카이피오의 딸, 장례비는 카토가 부담. **지칭** 102쪽 ¶3 That = 그가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들(앞 문장 won men's hearts) / they were mistaken = 그가 무를 거라 생각한 사람들 / ¶4 he was near death = Caepio, nearly killed him · take him = Cato / 103쪽 ¶1 it didn't soften = 부모와 형을 잃은 일.

> **한 줄 요약** 선거법을 지킨 유일한 후보로 존경을 얻은 카토는 형 카이피오의 임종을 몇 시간 차이로 놓치고 깊이 슬퍼했지만, 청렴만큼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13-4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것, 맨발의 원로원 의원 103쪽 ¶2 ~ 104쪽 ¶2

원문 위치 원서 103쪽 ¶2 ~ 104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3쪽 ¶2 첫 문장	at age thirty … the office of quaestor	숫자·직책 — 서답형 후보
▲	103쪽 ¶2 둘째 문장	dedication to eliminating corruption and returning Rome	전치사 to + 동명사 병렬
▲	103쪽 ¶2 셋째 문장	to overhaul …, ousting …, and seeking to redress … and to track down	목적의 to부정사 + 분사 병렬
▲	103쪽 ¶2 넷째 문장	the first to show up … and the last to leave	the first / the last + to V
●	103쪽 ¶2 넷째 문장	seemed to relish saying no	반전 후보 → dread
▲	103쪽 ¶2 다섯째 문장	so legendary that it became almost political cover	so ~ that 결과
◆	103쪽 ¶2 일곱째 문장	"Cato will not consent."	밑줄 의미 1순위(남의 거절 핑계)
▲	103쪽 ¶3 다섯째 문장	because his very essence seemed to shame them	the very + 명사(강조) / seem to V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3쪽 ¶4 첫 문장	a sense that Cato was benefiting ... or that he was quietly accumulating	동격 that절 병렬
●	103쪽 ¶4 셋째 문장	extravagant, brilliantly colored purple robes	반전 후보 → plain
★	103쪽 ¶4 셋째~열째 문장	dark robe / barefoot / walking / without interest / trenches	내용 일치 1순위(검소한 생활 목록)
◆	103쪽 ¶5	as if he lived in Plato's Republic, not "among the dregs of Romulus."	밑줄 의미: 이상 국가의 기준으로 산 사람
▲	103쪽 ¶6 첫 문장	may have been partly given ..., but it's unquestionable that	may have been p.p. + 가주어
★	104쪽 첫 줄	to be ashamed only of what was really shameful	빈칸·주장 1순위
★	104쪽 ¶1 넷째 문장	we allow ourselves to be bought—without even the benefit of getting paid	주장 후보 · allow O to be p.p.
▲	104쪽 ¶2 첫 문장	it was Cato who most actively practiced Aristo's ideas about being indifferent	강조구문 + 전치사 + 동명사

내용

슬픔에서 벗어난 카토는 서른 살에, 단단해지고 환상을 버린 채 재무관에 출마했다. 원로원에 처음 들어가는 자리였고, 무엇보다 부패를 없애고 로마를 근본 가치로 되돌리려는 그의 완강한 헌신을 펼칠 더 넓은 무대였다. 그는 임기 동안 국고를 정비해 부패한 서기와 필경사를 몰아내고, 술라의 공권 박탈(살생부) 때 부정하게 얻은 이득을 바로잡고, 빚을 떼먹은 사람들을 추적하려 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으며, 정치인들의 선심성 사업과 쓸데없는 곁가지 일, 국비로 누리는 사치에 '안 된다'고 말하기를 즐기는 듯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의 엄격함은 워낙 유명해서 덜 엄격한 동료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방패가 되었다. 선심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불가능합니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엄격함은 적을 만들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키케로처럼 그도 점점 도둑 정치로 변해 가는 나라에서 권력을 다투던 카틸리나 같은 실력자들과 맞섰다. 전기 작가들은 그의 존재 자체가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듯해서 그들이 거의 평생 그에게 적대적이었다고 전한다. 키케로가 카토와 손잡을 때에도 차이가 있었다. 카토가 개혁으로 이득을 보거나 몰래 재산을 불린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공직과 부유한 집안에도 그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곤 했다. 원로원에서 유행하던 화려한 자주색 옷을 거부하고 수수한 어두운 옷만 입었고, 향수를 뿌리지 않았으며, 맨발로 로마 거리를 걷고 토가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친구들이 말을 탈 때 그는 사양하고 곁에서 걷기를 즐겼다. 원로원 회기 중에는 로마를 떠나지 않았고, 호화로운 연회를 열지 않았으며 잔치에서 배불리 먹지 않고 가장 좋은 몫을 남에게 양보했다. 친구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무장 호위와 수행원을 거절했으며, 군대에서는 병사들과 함께 참호에서 잤다. 키케로는 그를 "로물루스의 찌꺼기 속"이 아니라 플라톤의 『국가』에 사는 듯 행동한 사람이라 했다. 강철 체질은 일부 타고났을지 몰라도, 그의 선택이 갑옷을 한 겹 더 두르고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비하게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플루타르코스는 카토가 정말 부끄러운 것만 부끄러워하고 다른 일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평가는 무시하도록 스스로를 길들였다고 말한다.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볼지 신경 쓰고, 너무 달라 보이기 싫어 모두와 같은 취향을 갖는다. 군중이 우리를 받아 주도록 군중이 하는 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 흔히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고, 대가조차 받지 않고 팔려 간다.

모든 스토아 가운데 덕 외의 모든 것에 무관심하라는 아리스토의 생각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카토였다. 여론도, 체면도, '브랜드'도 상관없었다. 큰 사치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스파르타식 삶을 택했다. 태도에 약간의 오만함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로마 거리를 걸을 때 그는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청하지 않아도 손을 내밀었다고 전한다. 평판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어법

- **a larger platform for his intractable dedication to eliminating corruption and returning Rome to its core values** : dedication to의 to는 전치사 → 동명사 eliminating · returning 병렬. 변형 → dedication to eliminate는 오답. return A to B = A를 B로 되돌리다.
- **He used his term as quaestor to overhaul the treasury, ousting corrupt clerks and scribes, and seeking to redress the ill-gotten gains under Sullan proscriptions and to track down deadbeat debtors** : to overhaul = 목적. ousting · seeking = 분사 병렬, seek의 목적어 to redress · to track down이 다시 병렬.
- **He was the first to show up for work each morning and the last to leave, and seemed to relish saying no to the pet projects of politicians** : the first / the last + to V = 가장 먼저(늦게) ~한 사람. relish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쓴다(relish saying).
- **His commitment was so legendary that it became almost political cover for his less stringent colleagues** : so + 형용사 + that 결과 구문. less + 형용사 = 덜 ~한(열등 비교). cover = 방패, 핑계.
- **there was never a sense that Cato was benefiting from these reforms or that he was quietly accumulating his own wealth through them** : a sense 뒤의 동격 that절 두 개가 or로 병렬. them = these reforms.
- **He was a man, Cicero would say, who acted as if he lived in Plato's Republic, not "among the dregs of Romulus."** : 삽입절 Cicero would say가 선행사 a man과 관계절 who ~ 사이에 끼었다. as if + 과거시제(lived) = 실제와 다른 가정(실제로는 타락한 로마에 살았다).
- **Cato was "accustoming himself to be ashamed only of what was really shameful and to ignore men's low opinion of other things."** : accustom oneself to ~ = 스스로를 ~에 길들이다. 이 번역문은 to 뒤에 부정사(to be ashamed · to ignore)를 병렬로 썼다(오늘날에는 to + 동명사가 더 흔하다 — 둘 다 맞으므로 to be를 틀렸다고 고르지 말 것). what = 관계대명사(정말 부끄러운 것).
- **We compromise, often without knowing it; we allow ourselves to be bought—without even the benefit of getting paid for it** : allow + O + to be p.p.(팔려 가게 내버려 두다). 전치사 of + 수동 의미의 동명사 getting paid. without knowing it = 모르는 사이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tractable	완강한, 다루기 힘든	unyielding	flexible
overhaul	정비하다, 뜯어고치다	reform	—
oust	몰아내다	expel	appoint
redress	바로잡다	rectify, remedy	—
ill-gotten	부정하게 얻은	dishonestly acquired	honestly earned
deadbeat	(빚을) 떼먹는	delinquent	—
relish	즐기다	enjoy, savor	dread
stringent	엄격한	strict	lax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sent	동의하다	agree	refuse
kleptocratic	도둑 정치의	corrupt	—
extravagant	사치스러운	lavish	plain
entourage	수행원단	retinue	—
indifferent	무관심한	unconcerned	concerned

내용 일치 30세 재무관 = 첫 원로원 입성 · 국고 정비 · 부패한 서기 축출 · 술라의 공권 박탈 때의 부당 이득 · 빚 떼먹는 사람 추적 · 맨 먼저 출근, 맨 나중 퇴근 · 그의 엄격함이 동료들의 '방패'(플루타르코스) · 카틸리나와 대립 · 수수한 어두운 옷 · 향수 X · 맨발 · 말 대신 걸음 · 무이자 · 참호 · 아리스토의 무관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 **밑줄 의미** "Cato will not consent" = 카토의 엄격함을 핑계 삼아 다른 정치인들이 선심 요구를 거절함 / Plato's Republic vs the dregs of Romulus = 철인이 다스리는 이상 국가의 기준대로 살았지, 타락한 현실 로마에 맞추지 않음.

> **한 줄 요약** 재무관 카토는 국고를 정비하며 '안 된다'를 즐겼고, 맨발과 어두운 옷의 검소한 삶으로 정말 부끄러운 것만 부끄러워하는 법을 스스로 훈련했다.

13-5 공공선의 장부, 그리고 키케로와 엇갈린 재판 104쪽 ¶3 ~ 105쪽 ¶4

원문 위치 원서 104쪽 ¶3 ~ 105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4쪽 ¶3 셋째 문장	the pleasure will quickly disappear, but the wicked thing will stay with you forever	요지·빈칸 후보
▲	104쪽 ¶3 셋째 문장	even though taking a shortcut or doing something bad may bring	동명사 주어 병렬 + even though
★	104쪽 ¶4 첫 문장	in a tradition begun by Diogenes, was to serve the public good	빈칸 후보 · 6장 연결
▲	104쪽 ¶4 여섯째 문장	whether his skeptical great-grandfather or fame-chasing friend Cicero understood it or not	양보의 whether ~ or not
●	104쪽 ¶5 첫 문장	his conduct was irreproachable	반전 후보 → questionable
★	104쪽 ¶5 둘째·셋째 문장	some seven thousand talents / a statue of Zeno	숫자·인물 — 서답형 후보
▲	104쪽 ¶5 셋째 문장	the philosophy to which he was so committed	전치사 + 관계대명사(be committed to)
▲	104쪽 ¶5 넷째 문장	resented that Cato refused to let Munatius enrich himself	let + O + 원형 + 재귀대명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4쪽 ¶6 첫 문장	countersignals	밑줄 의미: 권력 과시에 맞선 반대 신호
★	104쪽 ¶6 셋째·넷째 문장	He was not playacting. He was practicing.	빈칸 후보 · 대비
▲	104쪽 ¶7 둘째 문장	a powerful position he was eligible for …—giving him the chance	관계사 생략 + 전치사 잔류 / 분사구문
▲	105쪽 첫 줄	the inflexible Stoic on one side, the more fluid and ambidextrous Academic on the other	on one side ~ on the other 대구
▲	105쪽 ¶2 넷째 문장	With Catiline threatening violence against the state, could they really afford	with + O + 현재분사 / 수사의문문
★	105쪽 ¶3 첫 문장	Where does commitment end and obstinance begin?	요약·빈칸 1순위
◆	105쪽 ¶4 둘째 문장	this black-and-whiteness	밑줄 의미: 타협 없는 흑백 논리

내용

카토는 옳은 일은 어렵고 지칠 수 있지만 그 수고는 곧 잊히고, 잘한 일의 결과는 "살아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로 지름길이나 나쁜 일은 몇 초의 안도를 줄지 몰라도 "쾌락은 금세 사라지고 악행은 영원히 남는다." 디오게네스에게서 시작된 전통에 따라 그는 자신의 일이 공공선에 봉사하는 것이라 믿었다. 자기 자신도, 편의도, 가족도 아닌 나라를 위해서. 회의적인 증조부나 명성을 좇는 친구 키케로가 이해하든 말든, 그것이 진짜 철학이었다. 로마 정치인들이 개인 금고를 채우는 데 즐겨 쓰던 기회인 키프로스 병합 감독을 맡았을 때도 그의 처신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키프로스 보물을 꼼꼼히 판매해 부정 하나 없이 로마 국고에 약 7,000탈렌트를 채웠고, 팔지 않은 것은 그가 헌신한 철학의 창시자 제논의 동상 하나뿐이었다. 잃은 것이 하나 있었다. 자기 배를 불리지 못하게 막은 데 앙심을 품은 무나티우스 루푸스와의 우정이었다. 지위와 권력 과시에 사로잡힌 제국에서 이것은 강력한 몸짓, 곧 반대 신호였다. 카토의 경우 그것은 진심이었다. 연기가 아니라 훈련이었다. 스토아 공부는 그에게 훈련의 중요성, 유혹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안락과 외적인 것에 대한 욕구에 미리 면역을 기르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선조들이 굳건한 본보기를 남겼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따르려 했다. 모든 로마인이 카토일 수는 없었지만, 카토는 그들을 대변할 수 있었다. 기원전 63년 그는 집안의 오래된 평민 뿌리 덕에 자격을 얻어, 이제 막강해진 평민 호민관이 되었다.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과 엘리트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기회였다. 집정관은 키케로였고, 두 사람은 카틸리나 음모자들의 사형을 요구하는 데 재빨리 힘을 합쳤지만 늘 뜻이 같지는 않았다. 제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의 장교였고 뒤에 집정관이 된 무레나의 재판은, 굽히지 않는 스토아와 더 유연하고 양쪽을 능숙하게 오가는 아카데미학파의 대비를 보여 주었다. 키케로는 변호를, 카토는 기소를 맡았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키케로는 뇌물로 공직을 얻은, 명백히 유죄인 사람을 변호하고 있었다. 디오게네스 같은 이전 스토아가 지지했더라도, 카토에게 유죄인 사람을 변호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무레나는 잘못했고 공정하지 않았으니 공직에서 쫓겨나야 했다. 옳은 것은 옳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스토아의 논리였다. 『무레나 변론』으로 전해지는 키케로의 논리는 더 복잡하다. 늘 그렇듯 사익과 자존심이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는 무레나를 변호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 믿었다. 카틸리나가 국가에 폭력을 위협하는 마당에 동시에 서로를 찢을 여유가 있는가? 무레나가 유죄로 쫓겨나면 집정관직이 더 나쁜 손에 넘어가지 않겠는가? 키케로는 카토를 깊이 존경했지만, 그가 카토의 흔들림 없는 이상주의를 순진하다고 여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스토아 철학은 좋지만, 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카토와

스토아를 향한 비판이다. 헌신은 어디서 끝나고 고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정치도 삶도 타협이 필요하지 않은가? 두 악 가운데 덜한 것을 골라야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카토는 그 말에 그리 수긍하지 않는 듯했다. 아니, 그는 아니라고 확신했고, 이 흑백 논리는 다가올 싸움과 파멸을 예고했다.

어법

- **The results of doing well, though, "will not disappear as long as you live," he said** : 주어 The results(복수) → will not disappear. as long as = ~하는 한. though = 그렇지만(문장 중간에 끼운 부사).
- **His job, Cato believed, in a tradition begun by Diogenes, was to serve the public good** : 삽입절 Cato believed와 과거분사구 begun by Diogenes(디오게네스가 시작한)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끼었다. 주어 His job → was, 보어 = to serve(명사적 to부정사).
- **That's what real philosophy was about, whether his skeptical great-grandfather or fame-chasing friend Cicero understood it or not** :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be about의 목적어 자리가 빔). whether A or B ~ or not = A든 B든 ~하든 말든(양보).
- **The only thing he left unsold was a statue of Zeno, the founder of the philosophy to which he was so committed** : leave + O + 과거분사(unsold: 팔리지 않은 채). be committed to의 to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 to which. 주어 The only thing → was.
- **his friendship with a man, Munatius Rufus, who resented that Cato refused to let Munatius enrich himself** : resent + that절. refuse to V. let + O + 원형(enrich). himself = Munatius(재귀대명사는 enrich의 의미상 주어를 받는다).
- **this austere man was named tribune of the plebs, now a powerful position he was eligible for because of his family's ancient plebeian origins—giving him the chance to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disenfranchised with those of the elites** : name + O + 보어의 수동(was named tribune). position 뒤 관계사 생략, 전치사 for 잔류(be eligible for). balance A with B. those = the interests.
- **With Catiline threatening violence against the state, could they really afford to tear themselves apart at the same time?** : with + O + 현재분사(카틸리나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could they afford to V? = 감당할 수 있겠는가(수사의문문 → 그럴 수 없다).
- **Stoicism was well and good, but not if it was so rigid and inflexible that it put the survival of the government at risk** : so ~ that 결과. but not if ~ = 그러나 ~라면 그렇지 않다(well and good의 생략). put A at risk = A를 위태롭게 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xhausting	지치게 하는	tiring	refreshing
expediency	편의, 눈앞의 이익	convenience	principle
annexation	병합	takeover	—
irreproachable	흠잡을 데 없는	blameless	questionable
scrupulous	꼼꼼한, 양심적인	meticulous	careless
coffers	금고, 국고	treasury	—
resent	분하게 여기다	begrudge	welcome
playact	연기하다, 시늉하다	pretend	—
inoculate	면역시키다	immunize	—
austere	엄격한, 검소한	strict, frugal	indulgent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mbidextrous	양손잡이의, 능수능란한	versatile	—
naive	순진한	simplistic	worldly
obstinance	고집	stubbornness	flexibility

내용 일치 선행의 결과는 남고 악행의 쾌락은 사라짐(카토의 말) · 공공선의 전통 = 디오게네스에서 시작 · 키프로스: 약 7,000탈렌트, 팔지 않은 것 = 제논의 동상, 잃은 것 = 무나티우스 루푸스와의 우정 · 63 BC 평민 호민관(평민 뿌리 덕) · 그때 집정관 = 키케로 · 카틸리나 음모자 사형 요구엔 함께 · 무레나 재판: 키케로 = 변호, 카토 = 기소. **지칭** 104쪽 ¶3 he said = Cato / ¶5 himself = Munatius / ¶7 them = (카토일 수 없는) 로마인들 / 105쪽 첫 줄 the inflexible Stoic = Cato, the Academic = Cicero / ¶2 his arguments = Cicero, the man's idealism = Cato's.

> **한 줄 요약** 카토는 키프로스에서 한 푼의 부정도 없이 공공선에 봉사했고, 무레나 재판에서는 '옳은 것은 옳다'며 국가의 안정을 앞세운 키케로와 맞섰다.

13-6 필리버스터, 그리고 카이사르라는 정반대 105쪽 ¶5 ~ 106쪽 ¶1

원문 위치 원서 105쪽 ¶5 ~ 106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5쪽 ¶5 첫 문장	with quiet, unbreakable defiance	밑줄 의미 · 서답형 단어의 출처
▲	105쪽 ¶5 첫 문장	had shut down the entreaties of that visiting soldier	과거완료(더 앞선 어린 시절)
▲	105쪽 ¶5 셋째 문장	Believing himself to be an essential check on	분사구문 + believe O to be
★	105쪽 ¶5 셋째 문장	a political trick that remains in use: the filibuster	빈칸·제목 후보
▲	105쪽 ¶5 넷째 문장	Using his voice and willpower as weapons, … by talking, talking, and talking	분사구문 + by -ing
●	105쪽 ¶5 다섯째 문장	prevent laws that violated the spirit of Rome's old ways	반전 후보 → upheld
●	105쪽 ¶6 첫 문장	he resisted necessary change	반전 후보 → welcomed
▲	105쪽 ¶6 둘째 문장	fueled a sense in others that similarly unilateral moves would be necessary	동격 that절이 떨어져 놓임
▲	105쪽 ¶6 셋째 문장	so as not to hear … and so that the business of the state could resume	so as not to V / so that 병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5쪽 ¶7 첫 문장	between commitment and compromise ... between Republicanism and Caesarism	요약·통합 사고 1순위
▲	106쪽 인용	Caesar was considered great because of ..., Cato for the uprightness of his life	반복 동사 생략
◆	106쪽 인용	The former ... the latter	지칭: the former = Caesar, the latter = Cato
★	106쪽 인용 마지막 문장	He preferred to be, rather than merely to seem, virtuous	빈칸 1순위
▲	106쪽 인용 마지막 문장	the less he sought renown the more it overtook him	the 비교급, the 비교급
◆	106쪽 ¶1 넷째 문장	the unstoppable force met the immovable object	밑줄 의미: 물러서지 않는 두 힘의 충돌

내용

어린 시절 카토는 찾아온 병사의 간청을 조용하지만 꺾이지 않는 저항으로 물리쳤다. 정치인이 된 그는 그 끈기를 비슷한 방식으로 썼다. 자신이 점점 빨라지는 로마의 붕괴와 조상들이 사랑한 옛 관습의 포기를 막는 필수적인 견제라고 믿은 그는, 지금도 쓰이는 정치 수법인 필리버스터를 개척했다. 목소리와 의지를 무기 삼아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해 자기 당파의 입장을 지켜 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세금 징수 계약이 부패한 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로마의 옛 방식의 정신을 어기는 법을 막을 수 있었다. 동시에 타고난 보수성 때문에 그는 필요한 변화에도 저항했다. 카토의 1인 저항이 다른 이들에게도 비슷한 일방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부추겼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집정관이 된 카이사르는 그의 끝없는 장광설을 듣지 않고 국정을 다시 움직이려고 그를 투옥했다. 카토와 키케로의 대비가 성격 유형, 곧 헌신과 타협의 대비였다면, 카토와 카이사르의 대비는 공화주의와 카이사르주의라는 더 이념적인 것이었다. 의지의 싸움이자 철학의 싸움이었다. 두 사람은 저마다 지나친 면이 있었지만 대단한 인물이었다. 카이사르 지지자였던 역사가 살루스티우스도 두 사람을 함께 높였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혈통과 나이와 웅변, 영혼의 위대함과 명성에서 거의 같았지만 그 종류가 달랐다. 카이사르는 베풂과 아낌없는 너그러움으로, 카토는 올곧은 삶으로 위대하다고 여겨졌다. 카이사르는 온화함과 연민으로 이름을 얻었고, 카토에게는 엄격함이 위엄을 주었다. 카이사르는 주고, 어려움을 덜어 주고, 용서해서 명성을 얻었고, 카토는 아낌없는 선물 없이 명성을 얻었다. 한쪽에는 불운한 이들의 피난처가, 다른 쪽에는 악인들의 파멸이 있었다. 카이사르는 큰 지휘권과 군대, 자기 공적이 빛날 새 전쟁을 갈망했고, 카토는 자제와 예의, 무엇보다 엄격함을 길렀다. 그는 부자와 재산을, 음모가와 음모를 다투지 않고, 부지런한 이와는 공적을, 절제하는 이와는 절제를, 흠 없는 이와는 청렴을 다투었다. 덕 있어 보이기보다 실제로 덕 있기를 바랐기에, 명성을 덜 좇을수록 명성이 더 그를 따라왔다. 카이사르는 권력과 통제와 변화로 움직였다. 카토는 퇴폐와 실력자와 부패 이전, 로마의 황금기로 돌아가기를 바랐고,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지금 그대로 두려 했다. 그렇게 멈출 수 없는 힘이 움직일 수 없는 물체와 부딪쳤고, 그 충돌은 몇 년에 걸쳐 폭발적이었다.

어법

- **As a young boy, Cato had shut down the entreaties of that visiting soldier with quiet, unbreakable defiance** : had shut down = 과거완료(정치인 시절보다 앞선 어린 시절). shut down = 단칼에 물리치다. that visiting soldier = 앞에서 말한 그 병사(101쪽 ¶1).
- **Believing himself to be an essential check on Rome's accelerating collapse and the abandonment of that mos maiorum beloved by his ancestors, he pioneered a political trick that remains in use: the**

filibuster : 분사구문(= Because he believed ~). believe + O + to be. beloved by = 과거분사 후치 수식. 콜론 뒤 = a political trick의 정체.

- **Using his voice and willpower as weapons, Cato effectively preserved the positions of his party by talking, talking, and talking** : 분사구문(수단·방식). use A as B. by -ing = ~함으로써. talking의 반복은 끝없이 이어진 연설을 소리로 보여 주는 문체.
- **It is not extreme to say that Cato's one-man resistance fueled a sense in others that similarly unilateral moves would be necessary** : 가주어 it – 진주어 to say. a sense의 내용을 밝히는 동격 that절이 in others 뒤로 떨어져 있다.
- **he would imprison Cato so as not to hear his marathon ramblings and so that the business of the state could resume** : so as not to V = ~하지 않으려고(부정어 not은 to 앞에). so that + S + could = 목적의 절. 두 목적 표현이 and로 병렬.
- **Caesar was considered great because of his benefactions and lavish generosity, Cato for the uprightness of his life** : 뒤 절은 반복되는 was considered great가 생략된 형태(Cato (was considered great) for ~). because of = 전치사구.
- **He preferred to be, rather than merely to seem, virtuous; hence the less he sought renown the more it overtook him** : prefer to A rather than (to) B. virtuous는 to be와 to seem의 공통 보어.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 ~할수록 더 …하다. it = renown.
- **If he could not have that, he at least wanted them to stay as they were now** : that = 황금기로 돌아가는 일. want + O + to V. them = things(로마의 상황). as they were = 지금 그대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ntreaty	간청	plea	—
defiance	저항, 반항	resistance	obedience
tenacity	끈기	persistence	irresolution
check (n.)	견제, 억제	restraint	—
pioneer (v.)	개척하다	initiate	—
single-handedly	혼자 힘으로	alone	jointly
inherent	타고난, 고유한	innate	acquired
unilateral	일방적인	one-sided	multilateral
rambling	장광설	digression	—
excess	지나침	extravagance	moderation
benefaction	베풂, 선행	charity	—
sternness	엄격함	severity	leniency
decadence	퇴폐	decay	virtue

내용 일치 필리버스터 = 카토가 개척, 지금도 쓰임 · 막은 것 = 부패한 쪽으로 가는 세금 징수 계약, 옛 정신을 어기는 법 · 필요한 변화에도 저항 · 카이사르는 집정관 때 그를 투옥 · 키케로와는 성격(헌신 vs 타협), 카이사르와는 이념(공화주의 vs 카이사르주의) · 살루스티우스 = 카이사르 지지자 · 카이사르 = 베풂 · 용서, 카토 = 올곧음 · 엄격. **밑줄 의미** quiet, unbreakable defiance = 말없이,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는 저항 / the unstoppable force met the immovable object = 물러설 줄 모르는 두 사람(변화를 몰아붙이는 카이사르와 옛 질서를 지키는 카토)의 충돌.

한 줄 요약 어린 시절의 저항을 필리버스터로 이어 간 카토는 필요한 변화마저 막았고, 베풂의 카이사르와 엄격함의 카토는 결국 정면으로 부딪쳤다.

13-7 폼페이우스를 밀어낸 거절, 최고의 친구 최악의 적 106쪽 ¶2 ~ 107쪽 ¶3

원문 위치 원서 106쪽 ¶2 ~ 107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6쪽 ¶2 첫 문장	a Manichean struggle between good and evil	밑줄 의미: 선악 이분법
▲	106쪽 ¶2 둘째 문장	the good, even the Catos, are not always blameless	the + 형용사 = 복수 / 부분 부정
▲	106쪽 ¶2 넷째 문장	a man whom he respected but often tangled with	목적격 whom이 두 동사의 목적어
▲	106쪽 ¶2 다섯째 문장	It is said that Pompey proposed	전언의 가주어 구문(단정 아님)
★	106쪽 ¶2 다섯째 문장	either Cato's niece or daughter	내용 일치 후보 · either A or B
●	106쪽 ¶2 일곱째 문장	Cato dismissed it, and did so rudely	반전 후보 → accepted / did so 대동사
◆	106쪽 ¶2 여덟째 문장	not to be captured by way of the women's apartments	밑줄 의미 1순위
◆	106쪽 ¶3	Bravo.	저자의 한마디 — 칭찬 뒤 반전의 신호
▲	106쪽 ¶4 첫 문장	in so rejecting …, Cato drove … into an alliance with Caesar instead, who promptly married his daughter, Julia, to Pompey	in -ing / 계속적 who / marry A to B
▲	106쪽 ¶4 셋째 문장 ~ 107쪽 첫 줄	None of these things perhaps would have happened … had not Cato been so afraid … as to allow	if 생략 도치 가정법 과거완료 + so ~ as to V
★	107쪽 ¶1 셋째 문장	In 55 BC … the perpetual thorn in their side	숫자 · 밑줄 의미 후보
▲	107쪽 ¶1 여섯째 문장	which encouraged the fraudsters to whip up votes against him	계속적 which(앞 절 전체) + encourage O to V
▲	107쪽 ¶2 첫 문장	It would be a mistake, however, to think that Cato was incapable of	가주어 + to부정사 진주어
●	107쪽 ¶2 셋째 문장	always calm and friendly	반전 후보 → hostil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7쪽 ¶3 셋째 문장	No better friend, no worse enemy	밑줄 의미: 친구에겐 최고, 적에겐 최악
▲	107쪽 ¶3 여섯째 문장	unlike that of Rutilius, this fate would affect not just him, but the Republic itself	that = fate / not just A but B

내용

역사는 특히 멀리서 보면 선과 악의 마니교적 싸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제나 회색 지대가 있고, 선한 사람도, 카토 같은 사람조차 늘 흠이 없지는 않다. 카토의 완고함이 늘 공공선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해외 정복을 마치고 로마에 돌아온 폼페이우스는, 존경하지만 자주 다투던 카토에게 동맹을 타진했다. 폼페이우스가 카토의 조카딸이나 딸과의 혼인 동맹을 제안했다고 전해지며, 여인들은 두 집안이 맺어질 생각에 들떴다고 한다. 카토는 그것을, 그것도 무례하게 물리쳤다. 그는 중개인에게 "가서 폼페이우스에게 전하라, 카토는 여인들의 방을 통해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브라보. 그러나 그렇게 동맹을 거절한 탓에 카토는 막강한 폼페이우스를 카이사르와의 동맹으로 밀어냈고, 카이사르는 곧 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와 결혼시켰다. 하나가 되어 멈출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머지않아 수 세기의 헌정 관례를 뒤엎는다. 플루타르코스는, 카토가 폼페이우스의 작은 잘못을 그토록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힘을 남의 힘에 보태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래도 카토는 적어도 고집에서는 한결같았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삼두정치로 로마를 다스릴 때 카토는 사사건건 맞섰다. 기원전 55년 그들이 공동 집정관 선거에 나섰을 때 그는 끝없는 눈엣가시로서, 카이사르가 풀어놓은 위험한 새 세력에 맞서 원로원의 조상 전통을 옹호했다. 그는 갈리아에서의 전쟁 범죄로 카이사르를 고발했고, 선거 부정을 바로잡고 부패 법정을 설계했으며, 선거에서 뇌물 금지 정책을 고집해 사기꾼들이 그에게 반대표를 끌어모으게 만들었다. 세네카는 그가 세 사람이 온 세상을 나눠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권력욕이라는 여러 모습의 괴물과 부딪쳐, 제 무게에 눌려 무너져 가는 타락한 나라의 악덕에 홀로 맞섰고, 한 사람의 손이 할 수 있는 한껏 공화정의 몰락을 붙들었다고 썼다. 그렇다고 카토가 타협이나 협력을 할 줄 몰랐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플루타르코스는 그가 원한을 품을 줄 몰랐다고 전한다. 공공의 복리를 지킬 때는 "완고하고 꿈쩍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의견 차이에서는 늘 차분하고 다정했다. 그 안에는 엄격함과 친절, 신중함과 용기, 남에 대한 배려와 자신에 대한 두려움 없음, 비열함을 조심스레 피하는 마음과 그만큼 정의를 열렬히 좇는 마음이 고르게 섞여 있었다. 카토는 친절했고, 강인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현대의 스토아인 제임스 매티스 장군이 제1해병사단의 모토로 다듬어 삼은 "더 좋은 친구도, 더 나쁜 적도 없다"를 구현한 사람이었다. 루틸리우스가 정치적 미덕의 조용한 본보기였다면, 카토는 공격적이었고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 역시 훨씬 큰 규모로 순교자의 운명을 부르게 되는데, 루틸리우스와 달리 그 운명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공화정 자체를 흔들게 된다.

어법

- **In truth, there is always gray—and the good, even the Catos, are not always blameless** : the + 형용사 = 복수 보통명사(the good = good people → are). the Catos = 카토 같은 사람들(고유명사의 복수). not always = 늘 ~한 것은 아니다(부분 부정).
- **he felt out potential alliances with Cato, a man whom he respected but often tangled with** : 목적격 whom이 respected의 목적어이자 tangled with의 목적어(전치사 with가 끝에 남음). feel out = 의중을 떠보다.
- **It is said that Pompey proposed a marriage alliance with either Cato's niece or daughter** : It is said that ~ = ~라고 전해진다(사실 단정이 아니다). either A or B = A나 B 중 하나.
- **But in so rejecting the alliance, Cato drove the powerful Pompey into an alliance with Caesar instead, who promptly married his daughter, Julia, to Pompey** : in + -ing = ~하는 과정에서(~함으로써).

so = 그렇게(앞의 무례한 거절). who = Caesar(계속적 용법). marry A to B = A를 B와 결혼시키다. his daughter = 카이사르의 딸.

- **"None of these things perhaps would have happened," Plutarch reminds us, "had not Cato been so afraid of the slight transgressions of Pompey as to allow him to commit the greatest of all** : had not Cato been = if Cato had not been(if를 생략한 도치 가정법 과거완료). so + 형용사 + as to V = ~할 정도로 ~하여. perhaps = 플루타르코스의 유보(아마).
- **He insisted on his antibribery policy in elections, which encouraged the fraudsters to whip up votes against him** : insist on + 명사. 계속적 용법 which = 앞 절 전체(그가 뇌물 금지를 고집한 일). encourage + O + to V.
- **It would be a mistake, however, to think that Cato was incapable of compromise or collaboration** : 가주어 it – 진주어 to think. be incapable of + 명사 = ~할 줄 모르다.
- **And unlike that of Rutilius, this fate would affect not just him, but the Republic itself** : that = the fate(앞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not just A but B. itself = 강조의 재귀대명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anichean	선악 이원론의	dualistic	—
blameless	흠 없는	innocent	guilty
tangle with	~와 다투다	clash with	cooperate with
go-between	중개인	intermediary	—
precedent	관례, 선례	convention	—
transgression	잘못, 위반	offense	—
obstinacy	고집	stubbornness	flexibility
perpetual	끊임없는	constant	temporary
unleash	풀어놓다	release	restrain
degenerate	타락한	corrupt	virtuous
enmity	원한, 적의	hostility	friendship
solicitude	배려, 염려	concern	indifference
paragon	본보기	model	—

내용 일치 혼인 동맹 제안 = 조카딸 또는 딸(It is said — 전해지는 말) · 여인들은 들떴다(we are told) · 카토의 무례한 거절 → 카이사르가 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와 결혼시킴 · 삼두정치 = 카이사르 · 폼페이우스 · 크라수스 · 55 BC 공동 집정관 선거 · 갈리아 전쟁 범죄 고발 · 부패 법정 설계 · 원한을 모름(플루타르코스) · 매티스 = 제1해병사단 모토. **밑줄 의미** not to be captured by way of the women's apartments = 혼인으로 맺는 정치 동맹에 넘어가지 않겠다 / the perpetual thorn in their side = 삼두에게 끝없이 성가신 존재 / No better friend, no worse enemy = 친구에게는 더없이 좋은 친구, 적에게는 더없이 무서운 적.

> **한 줄 요약** 폼페이우스의 혼인 동맹을 무례하게 거절해 그를 카이사르 쪽으로 밀어낸 카토는, 삼두정치에 끝까지 맞서면서도 개인에게는 원한을 품지 않았다.

13-8 루비콘에서 우티카까지 107쪽 ¶4 ~ 108쪽 ¶9

원문 위치 원서 107쪽 ¶4 ~ 108쪽 ¶9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7쪽 ¶4 첫 문장	his bid for consul in 52 BC—no doubt due to the machinations	숫자 · 저자의 판단(no doubt)
▲	107쪽 ¶4 둘째 문장	It was time, he felt, for the Senate to recall Caesar	It is time for A to V + 삽입절
▲	107쪽 ¶4 셋째 문장	in the sense that Caesar had accumulated incredible power	in the sense that(~라는 의미에서)
●	107쪽 ¶4 넷째 문장	Cicero, more pragmatic, dreaded the implications	반전 후보 → welcomed
★	107쪽 ¶4 다섯째 문장	In 49 BC … the 13th Legion … across the Rubicon	숫자 — 서답형·내용 일치 후보
▲	107쪽 ¶5 둘째 문장 ~ 108쪽 첫 줄	Could a less intransigent politician have navigated the crisis better? Or not forced it	could have p.p. 의문 + 생략
▲	108쪽 첫 줄	it was not Cato's way to meditate on whether his insistence … had precipitated	가주어 + whether절 + 과거완료
★	108쪽 ¶1	to compromise … would have been moral capitulation	요약·통합 사고 1순위
◆	108쪽 ¶2 첫 문장	Cato may have hastened its destruction	요약 1순위 · 지칭: its = the Roman Republic's
▲	108쪽 ¶2 둘째 문장	a line that should have been drawn by others long before	should have been p.p.(이루어지지 않은 당위)
▲	108쪽 ¶3 첫 문장	having spurned Pompey's entreaties years earlier	완료 분사구문
★	108쪽 ¶4 둘째 문장	more than five hundred ships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108쪽 ¶4 넷째 문장	Within days of Cato's appointment, Pompey revoked it.	지칭: it = 함대 지휘 임명
▲	108쪽 ¶4 일곱째 문장	it was Cato—so recently demoted and betrayed—who stepped up	강조구문 + 과거분사 삽입
★	108쪽 ¶7 셋째 문장	a grueling thirty-day foot march across the hot desert to Utica	숫자·장소 — 서답형 1순위
◆	108쪽 ¶8	Victory was not his to win.	밑줄 의미: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

내용

기원전 52년 집정관 선거에서 진 뒤—저자는 틀림없이 정적들의 공작 때문이었다고 본다—카토는 승부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제 원로원이 카이사르를 갈리아에서 소환할 때라고 그는 생각했다. 카이사르가 엄청난 권력을 쌓았고 부유한 군단이 주인에 대한 끝없는 충성으로 국가를 위협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분명 옳은 일이었다. 그러나 더 실용적인 키케로는 그 결과를 두려워했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는 정말로 올라왔고, 제13군단이 내전을 몰고 루비콘을 건너 그를 따라왔다. 폼페이우스와의 동맹이 무산되었을 때처럼 물을 만하다. 꼭 이렇게 되어야 했을까? 덜 비타협적인 정치인이었다면 위기를 더 잘 헤쳐 나가거나, 파국까지 몰고 가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옳은 일을 고집한 것이 현 상태보다 훨씬 나쁜 일을 불렀는지 곱씹는 것은 카토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런 물음은 세상의 키케로들, 증조부가 그토록 경멸한 이론가와 소피스트들의 몫이었다. 카토에게 나라의 근본 법이 걸린 문제에서 타협하는 것, 곧 정치 놀음을 하는 것은 도덕적 항복이었을 것이다. 공화정을 지키려다 카토는 그 파멸을 앞당겼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른 이들이 훨씬 전에 그었어야 할 선을 그은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그는 싸우다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참된 철학자라면 우리 모두도 삶의 어느 순간에는 그래야 한다. 오랜 반목 끝에, 몇 해 전 폼페이우스의 간청을 물리쳤던 카토는 갑자기 폼페이우스와 한편이 되어 조국을 지키려 무기를 들었다. 젊은 날 용감한 군인이었던 그는 다시 용감했다. 그는 사심 없는 군인이기도 했다. 폼페이우스는 그에게 500척이 넘는 거대한 함대의 지휘를 맡겼지만, 전쟁 뒤의 정치 상황을 생각해 옛 적에게 그토록 큰 힘을 준 것을 다시 생각했고, 임명 며칠 만에 그것을 거두었다. 그래도 카토는 꺾이지 않았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는 원망하는 기색 없이 지휘권을 넘겼다. 오히려 다음 큰 전투 전날, 막 강등되고 배신당한 카토가 나서서 조국을 지키려는 병사들을 북돋웠다. 그가 자유와 덕, 죽음과 불꽃을 이야기하자 병사들의 함성과 동요가 대단해 지휘관들은 모두 희망에 차 위험에 맞서러 서둘렀다고 플루타르코스는 전한다. 스토아는 해야 할 일을 하고, 공을 따지지 않는다. 세네카는 어느 시대나 클로디우스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같은 사람은 낳지만 "모든 시대가 카토 같은 사람을 낳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칙처럼 추상적인 것을 위해 목숨을 건 정치인도, 대의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계속 나아간 정치인도, 사람들을 성공 가까이 이끈 무용과 지도력과 전략을 함께 갖춘 정치인도 드물었다. 그러나 카토는 그랬다. 폼페이우스가 머뭇거리는 사이 카이사르는 기원전 48년 그리스 중부 파르살루스에서 승리했다. 카토는 계속 싸우려는 희망을 품고 북아프리카로 빠져나가, 뜨거운 사막을 가로지르는 30일의 고된 도보 행군 끝에 군대를 우티카로 이끌어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다. 절박하고 처절했다. 승리는 그의 몫이 아니었다. 공화정의 패배가 분명해지자 카토는 함께 고귀하게 저항한 원로원 의원과 장교들 앞에 섰다. 이제 카이사르에게 가서 자비를 구할 때라고 그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했다. 나를 위해 빌지 말라, 나를 위해 은혜를 구하지 말라. 그런 간청은 정복당한 자의 것인데 카토는 지지 않았다. 중요한 곳, 명예롭고 정의로운 모든 것에서 그는 카이사르를 이겼다고 믿었다. 그는 조국을 지켰고, 온갖 결점에도 자신의 참된 성품을 보여 주었다.

어법

- **After Cato lost his bid for consul in 52 BC—no doubt due to the machinations of his political enemies—he decided to push his hand** : 대시 사이의 no doubt due to ~ = 틀림없이 ~ 때문(저자의 판단). due to = 전치사구(~ 때문에). push one's hand = 승부를 밀어붙이다.
- **It was certainly the right thing to do, in the sense that Caesar had accumulated incredible power and his wealthy legions menaced the state** : in the sense that = ~라는 의미에서(한정). the right thing to do = 형용사적 to부정사. had accumulated = 대과거.
- **Could a less intransigent politician have navigated the crisis better? Or not forced it to the breaking point?** : could have p.p. = ~할 수 있었을까(과거에 대한 가능성). 둘째 질문은 Could a less intransigent politician have가 생략되어 not forced로 시작한다.
- **But it was not Cato's way to meditate on whether his insistence on the right thing had precipitated a much worse thing than the current status quo** : 가주어 it – 진주어 to meditate. meditate on + whether절. insistence on + 명사. much + 비교급(훨씬 더 나쁜).

- **For Cato, to compromise—to play politics with the bedrock laws of his nation at stake—would have been moral capitulation** : to부정사 주어(to compromise), 대시 사이는 그 뜻풀이. with + O + 전치사구(at stake: 걸려 있는 채). would have been = (그렇게 했다면) ~이었을 것(가정).
- **Or perhaps he was drawing a line that should have been drawn by others long before** : should have been p.p. = ~되었어야 했다(그런데 되지 않았다). perhaps = 저자의 유보(단정하지 않음).
- **After a long antagonism, and having spurned Pompey's entreaties years earlier, Cato and Pompey were suddenly on the same team** : having spurned = 완료 분사구문(주절보다 앞선 일). 주절 주어는 Cato and Pompey지만 간청을 물리친 쪽은 문맥상 카토다.
- **Indeed, on the eve of the next great battle, it was Cato—so recently demoted and betrayed—who stepped up to inspire Rome's troops** : It was ~ who 강조구문(주어 Cato 강조). 대시 사이는 과거분사구(막 강등되고 배신당한). to inspire = 목적.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achination	음모, 공작	scheme, plot	—
recall (v.)	소환하다	summon back	dispatch
menace (v.)	위협하다	threaten	protect
pragmatic	실용적인	practical	idealistic
dread (v.)	몹시 두려워하다	fear	welcome
intransigent	비타협적인	uncompromising	flexible
precipitate (v.)	촉발하다, 앞당기다	trigger	prevent
capitulation	항복, 굴복	surrender	resistance
hasten	앞당기다	accelerate	delay
spurn	퇴짜 놓다	reject	accept
revoke	취소하다, 거두다	cancel	grant
undaunted	꺾이지 않는	unafraid	discouraged
grueling	고된	exhausting	easy

내용 일치 52 BC 집정관 낙선(정적의 공작 — 저자의 판단) · 카이사르 소환 요구 · 키케로는 결과를 두려워함 · 49 BC 루비콘 · 제13군단 · 함대 500척 이상 → 며칠 만에 해임, 원망 없이 이양(플루타르코스) · 48 BC 파르살루스(그리스 중부) · 북아프리카 · 30일 사막 행군 · 우티카 · 원로원 의원과 장교들에게 카이사르의 자비를 구하라고 함 — 자신을 위해서는 빌지 말라. **지칭** 107쪽 ¶4 their master = Caesar, carrying civil war with them의 them = the 13th Legion / 108쪽 ¶2 its destruction = 로마 공화정의 파멸 / ¶4 revoked it = 카토의 함대 지휘 임명 / ¶9 them = 원로원 의원과 장교들.

> **한 줄 요약** 카이사르 소환을 밀어붙인 카토의 비타협은 공화정의 파멸을 앞당겼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지휘권을 빼앗기고도 원망 없이 싸웠고 우티카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13-9 마지막 밤, 살아 있는 동상 109쪽 ¶1 ~ 110쪽 ¶4

원문 위치 원서 109쪽 ¶1 ~ 110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9쪽 ¶1	So too, he believed, had Rome's enemies.	so + 조동사 + 주어 도치(shown 생략)
▲	109쪽 ¶2 첫 문장	It is obvious in retrospect that Cato had already decided how the end would come	가주어 + 간접의문문
▲	109쪽 ¶2 둘째 문장	All that was left were the arrangements	보어(복수)에 끌린 were
★	109쪽 ¶2 열한째 · 열두째 문장	Were only good men free? Were bad men, like Caesar, slaves?	스토아 역설 — 12장 연결
▲	109쪽 ¶3 둘째 문장	more than a few of them must have hoped the meal might go on forever	must have p.p.(강한 추측)
▲	109쪽 ¶4 둘째 문장	which he noticed had been removed …, likely by a friend hoping to forestall what could not be forestalled	관계사 + 삽입절 + 과거완료 수동 / likely
▲	109쪽 ¶6 셋째 문장	Restored to his sword, Cato checked its razor edge	과거분사 분사구문
◆	109쪽 ¶6 넷째 문장	"Now I am my own master,"	밑줄 의미 1순위
◆	109쪽 ¶7 셋째 문장	Roman steel had pierced Rome's Iron Man	밑줄 의미: 제목과 겹친 말놀이
★	109쪽 ¶7 일곱째 문장	he died at forty-nine years old, pulling his own wound open	숫자 · 분사구문
◆	109쪽 ¶8	"he nevertheless gave Fortune a hard contest."	밑줄 의미: 졌지만 끝까지 맞섬
●	109쪽 ¶9 둘째·셋째 문장	admiringly (Montaigne) / much more disparagingly (Napoleon)	반전 후보 — 인물 바꿔치기 주의
▲	109쪽 ¶9 넷째 문장	Cato should have fought on, or waited, rather than seal his fate	should have p.p. + rather than + 원형
★	110쪽 ¶2 넷째 문장	Generations that remain inspired by his conduct	요지 1순위
▲	110쪽 ¶3 셋째 문장	it was better to have people ask why there wasn't a statue … than why there was	have + O + 원형 / 간접의문문 비교
★	110쪽 ¶3 넷째 문장	His character was the monument	빈칸·제목 1순위

내용

로마의 적들도 그렇게 자신의 참된 성품을 보여 주었다고 그는 믿었다. 돌이켜 보면 카토는 이미 끝을 어떻게 맞을지 정해 두었고, 남은 것은 준비뿐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배를 타고 달아나라고 설득하려 했고, 많은 친구를 안전한 곳으로 보냈다. 그리고 남은 이들과 저녁 식탁에 앉았다. 모든 기록이 말하듯 훌륭한 식사였다. 포도주가 따라지고, 첫 몫을 정하려 주사위를 굴리고, 접시가 돌았다. 카토의 식탁이 늘 그랬듯 철학이 오갔다. 선한 사람만 자유로운가? 카이사르 같은 악인은 노예인가? 시간이 빨리 흐르고 모두가 온전히 그 자리에 있던 저녁이었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적잖은 이들이 식사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카토는 그럴 수 없음을 알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마지막 여정을 의논했고, 평소답지 않게 배를 타고 떠날 친구들을 걱정했다. 그리고 아들과 친구들을 안아 주고 잘 자라고 인사했다. 방에서 그는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을 느긋하게 읽었다. 그러고는 칼을 찾았는데, 막을 수 없는 일을 막으려던 친구가 아마 치운 듯 칼이 방에서 사라져 있었다. 때가 되었다. 아버지의 뜻을 안 아들은 흐느끼며 계속 싸우라고, 살라고 애원했다.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 아폴로니데스에게 자살에 반대하는 철학적 이유로 카토를 설득해 달라고 했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칼을 돌려받은 카토는 손가락으로 날을 확인하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말한 뒤, 다시 앉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었다. 이른 새벽 깜박 졸다 깬 그는 홀로, 준비를 마치고 칼로 가슴을 찔렀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로마의 강철이 로마의 강철 인간을 꿰뚫었다. 그래도 그는 조용히 떠나지 못했다. 몸부림치며 쓰러진 그의 소리에 울던 친구들이 깨어났고, 달려온 의사가 상처를 꿰매는 동안 그는 정신을 잃었다 되찾기를 되풀이했다. 마지막 순간 정신이 든 카토는 어린 시절 처음 보여 준 맹렬하고 거의 비인간적인 결의로 스스로 상처를 벌려 생명이 더 빨리 빠져나가게 했고, 마흔아홉 살에 죽었다. 카이사르와, 시대의 흐름과, 죽음 자체와의 마지막 싸움에서 그는 졌지만, 플루타르코스의 결론대로 "운명과 힘겨운 승부를 벌였다." 왜 자살이었을까? 몽테뉴는 변함없는 지조와 원칙에 대한 헌신 때문에 "그는 폭군의 얼굴을 보느니 죽어야 했다"고 감탄하며 썼다. 한때 '영웅의 전당'에 카토의 흉상을 두었고, 끝내 패배해 모든 것을 잃고 자신도 자살을 생각했던 나폴레옹은 그의 죽음을 훨씬 낮게 평했다. 계속 싸우거나 기다렸어야지 제 손으로 운명을 정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카토의 죽음으로 득을 본 것도 기뻐한 것도 카이사르이고 비극을 당한 것은 로마와 그의 당파라며, 그가 울분과 절망으로 목숨을 끊었고 그 죽음은 "위대한 영혼의 약함, 스토아의 실수, 그의 삶의 오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에게 고대 세계의 위대한 영웅은 카이사르였다. 그는 워싱턴이나 토머스 페인 같은 계몽 시대의 진짜 위인들과 달리, 이 세상에 권력과 업적과 승리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카토의 죽음으로 득을 본 것은 누구인가? 끝까지 참되고 한결같았던 그의 처신에 지금도 영감을 받는 세대들이다. 로마에는 카토의 동상도, 그에 관한 책도 많지 않다. 영예는 어째서인지 정복자와 폭군에게 간다. 증조부는 왜 당신의 동상이 있느냐보다 왜 없느냐는 질문을 받는 편이 낫다고 말한 적이 있다. 소 카토의 경우는 더 간단하다. 그의 성품이 기념비였고, 정의와 자유와 용기와 덕에 대한 헌신이 오늘까지 서 있는 신전의 기둥이다. 그는 그의 시대에 살아 있는 동상이었고, 로마의 마지막 시민이자 로마의 강철 인간이었으며, 그때처럼 지금도 이 지면과 기억 속에서 그의 손가락은 곧장 우리를 가리킨다.

어법

- **So too, he believed, had Rome's enemies.** : 앞 문장 He had ... shown his true character를 받아 so + 조동사(had) + 주어로 도치했다(= Rome's enemies had shown their true character, too). he believed = 삽입절.
- **It is obvious in retrospect that Cato had already decided how the end would come. All that was left were the arrangements.** : 가주어 it – that절. how the end would come = 간접의문문. All that was left는 보어 the arrangements(복수)에 끌려 were를 썼다(was도 가능).
- **With the specter of death looming, more than a few of them must have hoped the meal might go on forever** : with + O + 현재분사(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채).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없다(강한 추측). more than a few = 적지 않은 수.
- **Then he called for his sword, which he noticed had been removed from his room, likely by a friend hoping to forestall what could not be forestalled** : which 뒤에 삽입절 he noticed, 그 뒤에 동사 had been

removed(과거완료 수동: 이미 치워져 있었다). likely = 아마(추정). hoping = 현재분사 후치 수식(a friend). what = 관계대명사.

- **Restored to his sword, Cato checked its razor edge with his finger** : 과거분사 분사구문(= When he was restored to his sword: 칼을 돌려받자). its = the sword's.
- **He believed that Cato should have fought on, or waited, rather than seal his fate with his own hand** : should have p.p. = ~했어야 했다(하지 않은 일에 대한 비판). rather than 뒤에 원형 seal.
- **His great-grandfather had once said that it was better to have people ask why there wasn't a statue in your honor than why there was** : have + O + 원형(사람들이 묻게 하다). 비교 대상은 간접의문문 두 개(why there wasn't ~ / why there was). 시제 일치로 was.
- **His character was the monument; his commitments to justice and liberty and courage and virtue are the pillars of the temple that stands to this day** : 세미콜론 앞은 과거(was), 뒤는 지금도 사실인 현재(are · stands). 주어 his commitments(복수) → are.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temple → stand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 retrospect	돌이켜 보면	looking back	—
specter	(불길한) 그림자	shadow, threat	—
loom	어렴풋이 다가오다	hover	recede
bid good night	잘 자라고 인사하다	say good night	—
forestall	미리 막다	prevent	allow
sob	흐느끼다	weep	—
writhe	몸부림치다	squirm	—
mortal	치명적인	fatal	harmless
constancy	지조, 한결같음	steadfastness	fickleness
disparagingly	깎아내리며	scornfully	admiringly
spleen	울분, 짜증	bitterness	—
blot	오점	stain	credit
monument	기념비	memorial	—

내용 일치 만찬의 화제 = 선한 사람만 자유로운가 · 악인은 노예인가 · 읽은 책 =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 칼을 치운 사람 = '아마' 친구 · 설득에 실패한 사람 = 스토아 철학자 아폴로니데스 · 죽은 나이 = 49세 · 몽테뉴 = 찬사, 나폴레옹 = 혹평(영웅의 전당에 흉상을 둔 사람) · 동상이 왜 없느냐는 질문이 낫다 = 증조부의 말. **밑줄 의미** Now I am my own master = 칼을 되찾아 자기 삶과 죽음을 스스로 정하게 됨(카이사르의 자비에 기대지 않음) / gave Fortune a hard contest = 운명에 졌지만 끝까지 맞섰다 / his finger points directly at us = 그의 삶이 지금의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다.

> **한 줄 요약** 카토는 철학이 오간 마지막 만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폴레옹의 혹평에도 그의 성품은 오늘까지 서 있는 기념비가 되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13 CATO]

범위	Cato the Younger, Rome's Iron Man (원서 PDF 99~110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Most of us worry about how others see us. Afraid of standing out, we adopt the tastes of those around us and go along with the crowd so that the crowd will take us in. Yet every time we do this, we grow a little weaker. Without noticing, we give ground, and we let ourselves be purchased without ever receiving the price. Cato chose another path. According to Plutarch, he trained himself to feel shame only for what truly deserved it and to shrug off people's poor opinion of everything else. No Stoic lived out Aristo's indifference to all things but virtue more fully than he did. What others thought of him did not count; doing right did.

① We should copy the tastes of others so that we can be accepted.
② A good reputation is the surest reward for doing what is right.
③ We grow stronger when we follow the crowd.
④ Being different from others is a virtue in itself.
⑤ We should be ashamed only of what is truly shameful, not of what others look down on.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reats never worked on Cato, not even as a child. The story goes that a powerful soldier once came to the family home over a dispute about citizenship and asked young Cato to plead his case before the boy's uncle, who was his guardian and also served as a tribune of the plebs. The boy simply ignored him. Annoyed by this lack of respect, the soldier tried to scare the boy, but Cato, just four years old, only stared back. The man then grabbed him by the feet and dangled him over a balcony. Cato neither cried out nor even blinked. Admitting defeat, the soldier put him down and remarked that if Rome were full of such people, he would never win anyone over.

① How Cato's Uncle Protected Rome's Citizens
② A Soldier Who Taught Cato to Fear Power
③ Unmoved at Four: Cato's First Battle of Wills
④ Why Roman Children Respected Soldiers
⑤ Cato Learns to Plead Cases in Court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apoleon, who had once kept a bust of Cato among his heroes, judged Cato's suicide harshly. Caesar, he argued, was the only one who gained from it, while Rome and Cato's party lost; the death was a weakness, a mistake, a stain on a great life. But Napoleon admired Caesar above all ancient figures and could not see, as Washington and Thomas Paine could, that life holds more than power and victory. So who really benefited? Every generation that has since been moved by a life that stayed true to the very end. Rome has few statues of Cato, but he hardly needs them. His character is his monument, and his devotion to justice, liberty, courage, and virtue still stands.

① Cato's true legacy lies in the lasting inspiration of his consistent character.
② Napoleon was right that Cato's death helped only Caesar.
③ Great men deserve more statues than conquering generals.
④ Power and victory are what history remembers best.
⑤ Washington and Thomas Paine followed Cato in choosing death.

4. 밑줄 친 cut from a different cloth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ato the Elder, the great-grandfather of our Cato, made his name defending Rome's ancestral customs against new foreign influences, and the influence he fought hardest was philosophy; in 155 BC he had wanted to drive the visiting Athenian philosophers out of the city. How fitting, then, that his great-grandson became a famous philosopher. Yet Cato the Younger was nothing like Carneades or Chrysippus, and clever dialectics were never his strength. In truth, he was cut from a different cloth, even compared with a genius like Posidonius. Almost every other Stoic owed part of his fame to what he said and wrote. Cato alone became legendary through his deeds and his character rather than his words.

① skilled at arguing both sides of a question
② famous for his deeds and character rather than his words
③ trained in the same school as his great-grandfather
④ interested mainly in Rome's ancestral customs
⑤ more brilliant as a writer than Posidonius

5. 밑줄 친 by way of the women's apartment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fter returning from his conquests abroad, Pompey looked for possible allies, and one of them was Cato, a man he admired but often clashed with. Pompey reportedly offered to join their families through a marriage to Cato's niece or daughter, and the women, it is said, were thrilled at the idea. Cato turned the offer down sharply. His reply to the go-between was cutting: Pompey should know that Cato could not be taken by way of the women's apartments. The refusal had a cost. Rejected, Pompey allied himself with Caesar instead, who quickly gave him his daughter, Julia, in marriage. Plutarch later suggested that none of what followed might have happened had Cato not feared Pompey's small faults so much.

① Cato would not let a marriage alliance win him over politically.
② Cato wanted the women of his family to choose their own husbands.
③ Cato preferred to meet Pompey in private rather than in public.
④ Cato feared that Pompey would harm the women of his house.
⑤ Cato believed that women should take no part in politics.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A letter arrived in 67 BC with the news that Cato's dear brother, Caepio, had fallen ill. The two had never been alike: Caepio enjoyed perfumes and comforts of a kind that Cato would never have permitted ① himself. Still, Cato adored his brother, and when word came that ② he was close to death, Cato set out at once. Crossing wild seas in a small boat whose captain was the only one willing to carry ③ him, he nearly lost his life. ④ He reached Thrace only to learn that he had come a few hours too late. Yet even in ⑤ his grief, which was almost unrestrained, he politely returned costly funeral gifts, and Caepio's daughter received her inheritance in full.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Although Cicero sometimes stood with Cato on reform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m: no one ever suspected Cato of profiting from those reforms or of quietly growing rich. Despite his offices and his wealthy family, he often looked penniless. Senators of the day liked showy purple robes, but Cato wore only a simple dark one, and he never used perfume. He went about Rome's streets barefoot with nothing under his toga, and when his friends rode on horseback, he chose to walk beside them. He gave no lavish parties, left the best portions at feasts to others, and lent money to friends without charging interest. On campaign, he shared the trenches with his men at night.

① 카토는 원로원에서 유행하던 자주색 옷을 즐겨 입었다.
② 카토는 개혁으로 몰래 재산을 불린다는 의심을 받았다.
③ 카토는 친구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④ 카토는 군대에서 병사들과 떨어져 따로 잠을 잤다.
⑤ 카토는 친구들이 말을 탈 때 그 곁에서 걸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When civil war came, Cato and Pompey, long rivals, found themselves fighting on the same side. Pompey gave Cato command of the fleet, an enormous force of over five hundred ships, but soon worried about how much power his old enemy would hold after the war. Only days later he took the command away. Cato handed it over without any sign of resentment, and the night before the next major battle he fired up the troops with a speech about freedom and virtue. After Caesar won the battle of Pharsalus (48 BC), Cato escaped to North Africa and led his army on a punishing thirty-day march through the desert to Utica. There, with defeat certain, he urged the senators with him to seek Caesar's mercy.

① 카토와 폼페이우스는 오랜 맞수였지만 내전에서 한편이 되었다.
② 폼페이우스는 카토에게 500척이 넘는 함대를 맡겼다.
③ 카토는 지휘권을 빼앗기자 폼페이우스를 원망하며 군을 떠났다.
④ 카이사르는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에서 승리했다.
⑤ 카토는 함께한 원로원 의원들에게 카이사르의 자비를 구하라고 권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Long before his political fame, Cato served as a soldier. He signed up in 72 BC to fight Spartacus in what is called the Third Servile War, for it seemed shameful to him ① to let another man serve in his place. In 68 BC, at the age of twenty-seven, he ran for military tribune, a post his father ② had held before him. Of all the candidates, only Cato actually ③ obeyed the campaign laws; bribery was common, but he refused to accept that everyone else's cheating ④ making it acceptable. For the following three years he led troops across the empire, and some expected the exotic provinces to soften him. They were wrong. His men loved him because he behaved like a common soldier, never ⑤ treating himself as better than they wer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ato learned the basics of Stoicism from Antipater of Tyre, but, unusually for a Stoic of that era, he studied oratory as well as philosophy. Rutilius Rufus had kept silent when he was put on trial; Cato would never do the same. He spoke only when he was sure that what he was about to say (A) [was / were] worth saying. When he did speak, however, he moved his listeners, and the fury that had once (B) [frightened / frightening] his tutor was turned into a fierce passion for justice. With a fearless character, Stoic principles, and great skill as a speaker, Cato became a powerful figure, and an unusual one, because everyone knew his vote (C) [could never be bought / could never buy].

	(A)	(B)	(C)
①	was	frightening	could never be bought
②	were	frightened	could never be bought
③	was	frightened	could never buy
④	were	frightening	could never buy
⑤	was	frightened	could never be bough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As a small boy, Cato had answered the soldier's threats with silent, ① unbreakable defiance, and as a politician he showed the same stubbornness. Convinced that he was a vital ② check on Rome's rapid decline and on the loss of its ancestral customs, he invented a political tactic still used today: the filibuster. Armed with nothing but his voice and his will, he simply kept talking, and in this way he ③ single-handedly stopped tax contracts from going to corrupt groups and blocked laws that broke with Rome's old traditions. Yet his deep conservatism also led him to ④ welcome changes that were truly needed. His one-man resistance even encouraged others to believe that ⑤ unilateral action was necessary, and Caesar, as consul, finally threw him in prison to silence his endless speeche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f Cato and Cicero differed in temperament, Cato and Caesar differed in ideology: Republicanism against Caesarism. The historian Sallust, though a supporter of Caesar, praised both men. They were nearly equal, he wrote, in family, age, eloquence, and greatness of spirit, but their greatness took different forms. Caesar won fame through generosity, kindness, and forgiveness, offering shelter to the unlucky; Cato won it through strictness and an upright life, bringing ruin to the wicked. Caesar longed for a great command and a new war in which to shine, while Cato competed only with the honest in honesty and with the restrained in self-control. Cato wished _____, and so the less he chased fame, the more it followed him.

① to seem virtuous rather than actually to be so
② to be virtuous rather than merely to appear so
③ to win a great command like Caesar's
④ to gain renown through lavish gifts
⑤ to forgive his enemies as Caesar did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When the sword was finally returned to him, he tested its sharp edge with his finger.

Alone in his room, Cato picked up one of Socrates's dialogues and read it slowly. (①) Then he asked for his sword, only to discover that it had been taken away, probably by a friend who hoped to prevent what could not be prevented. (②) While the sword was still missing, his son, who understood what his father meant to do, wept and begged him to keep fighting and to live, and the Stoic Apollonides, asked to argue him out of it, could only cry. (③) With the blade in his hand, he declared that he was now his own master and sat down to read the whole book again. (④) Sometime before dawn, after dozing off, he woke and drove the blade into his chest. (⑤) The wound was not fatal at first, and a doctor rushed in to stitch it closed.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It would be wrong to imagine that Cato could never compromise or work with others. ① Plutarch insists that he did not know how to hold a grudge: unbending when the public good was at stake, he stayed calm and friendly in personal quarrels. ② In him, Plutarch says, sternness and kindness, caution and courage were mixed in equal measure. ③ Much later, General James Mattis, himself a stoic, would adapt an old saying into a motto for the 1st Marine Division: there is no better friend and no worse enemy. ④ Marine divisions are known for their demanding training and strict discipline. ⑤ Cato fit those words exactly, for he was both gentle and hard.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63 BC Cato became tribune of the plebs, while Cicero served as consul. The two quickly united in demanding death for the men who had conspired with Catiline, but they did not always agree.

(A) Cicero, who took the defense, reasoned differently. With Catiline threatening the state, Rome could not afford to tear itself apart, and removing Murena might hand the consulship to worse men.

(B) Their clash came at the trial of Murena, who had served as an officer during the Third Mithridatic War before winning office through bribery. Cato prosecuted the case, and Cicero defended a man who was plainly guilty.

(C) For Cato, defending such a man was unthinkable. Murena had cheated and had to be removed from public life; what was right was right, and nothing else counted.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fter losing the consular election of 52 BC, surely because of his enemies' scheming, Cato pressed the Senate to call Caesar back from Gaul. In one sense this was plainly right, since Caesar had gathered enormous power and his rich legions were loyal to him alone. The more practical Cicero, however, feared what would follow, and in 49 BC Caesar returned, crossing the Rubicon with his 13th Legion and bringing civil war with him. Could a less rigid leader have handled the crisis better? Possibly. But Cato never asked whether standing firm for what was right had produced something far worse, because for him bargaining over the nation's basic laws would have meant moral surrender. In defending the Republic, he may have sped up its ruin.

→ Cato's refusal to (A) _____ on matters of principle was morally consistent, but it may have (B) _____ the very collapse of the Republic that he was trying to prevent.

① compromise ..... hastened
② compromise ..... prevented
③ fight ..... delayed
④ retreat ..... prevented
⑤ fight ..... hastened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Cato the Younger was born in 95 BC. His childhood tutor, Sarpedon, found him slow but diligent. In Cyprus he sold its treasures honestly, leaving only a statue of Zeno unsold. He rudely refused Pompey's offer of a marriage alliance. After Caesar won at Pharsalus, Cato marched his army for thirty days across the desert to Utica, where he took his own life. Montaigne admired his death; Napoleon called it a stain on his life.

<QUIZ>

(1) Who was Cato's childhood tutor?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was Cato born?
Answer for (2): _____

(3) Whose statue did Cato leave unsold in Cyprus?
Answer for (3): _____

(4) Is it true or false that Cato accepted Pompey's marriage offer?
Answer for (4): _____

(5) In which city did Cato take his own life?
Answer for (5): _____

(6) How many days did the march across the desert last?
Answer for (6): _____

(7) Who called Cato's death a stain on his life?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Utica	N. thirty
B. Pharsalus	O. Plutarch
C. Montaigne	P. Seneca
D. Sarpedon	Q. 195 BC
E. 95 BC	R. Rome
F. Zeno	S. Chrysippus
G. 46 BC	T. Napoleon
H. Antipater of Tyre	U. five hundred
I. False	V. Caesar
J. True	W. Apollonides
K. Thrace	X. 155 BC
L. forty-nine	Y. Cicero
M. Socrates	Z. Cypru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는 가장 강인한 동료들보다도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진 강철 체질을 타고났다. (consist of + 비교급 than even)

02 아테네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내쫓으려 한 사람은 바로 그였다. (It was he who ~ / throw A out of B)

03 카토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한 일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로 명성을 얻었다. (not A but B / what절 · who절)

04 술라가 경의를 받은 것은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어서였다. (not because A but because B / 수동)

05 나는 할 말이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은 말이 아니라고 확신할 때만 말을 시작한다. (명사절 주어 what / be better left unsaid)

06 카토는 선거법을 실제로 지킨 유일한 후보였다. (the only + 명사 + who / adhere to)

07 그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the first / the last + to V)

08 그는 마치 플라톤의 『국가』에 사는 것처럼 행동했다. (as if + 과거)

09 그가 팔지 않은 유일한 것은 제논의 동상이었다. (leave + O + p.p. / 단수 동사)

10 그는 덕 있어 보이기보다 덕 있기를 더 바랐다. (prefer to A rather than to B)

11 카토가 그토록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if 생략 도치 가정법 과거완료)

12 그는 계속 싸우거나 기다렸어야지, 제 손으로 운명을 정하지 말았어야 했다. (should have p.p. / rather than 원형)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카토의 출생·사망 연도 / 출신 / 죽은 나이	
그의 시대의 흔한 표현	
증조부 / 그가 집정관이 된 해 / 철학자 추방을 시도한 해	
학창 시절이 비슷했던 두 사람 / 스승 / 스승의 평	
발코니 일화 때 나이 / 병사가 찾아온 이유 / 삼촌의 직책	
술라가 경의를 받은 이유(사르페돈) / 카토의 반응	
성미를 묘사한 말 / 기록자 / 연극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	
스토아의 기초를 가르친 스승 / 함께 공부한 것	
자원한 전쟁 / 해 / 상대	
군사 호민관 출마 해 · 나이 / 증조부가 지은 건물	
형의 이름 / 병 소식이 온 해 / 도착한 곳	
재무관이 된 나이 / 동료들이 쓴 핑계	
카토가 입은 옷 / 거리에서의 차림 / 군대에서 잔 곳	
키케로의 비유	
키프로스에서 모은 돈 / 팔지 않은 것 / 잃은 친구	

항목	답
평민 호민관이 된 해 / 그해 집정관 / 무레나 재판의 역할	
카토가 개척한 정치 수법 / 그를 투옥한 사람	
두 사람을 함께 높인 역사가 / 카토와 카이사르의 대비	
폼페이우스와 결혼한 카이사르의 딸 / 삼두 / 매티스의 모토	
집정관 낙선 / 루비콘 / 파르살루스 / 함대 규모 / 행군	
마지막 밤의 책 / 설득에 실패한 스토아 / 찬사와 혹평	

4-3. 통합 사고 문제 — 12장과 13장을 잇는 자리

문제

12장에서 키케로가 공화정 편 군대의 지휘를 제안받고도 거절하고, 카토의 추도문마저 카이사르 쪽을 노엽게 할까 봐 스스로 검열한 일(94쪽 ¶3~¶5)과, 13장에서 무레나 재판 때 키케로는 국가의 안정을 이유로 유죄인 사람을 변호하고 카토는 옳은 것은 옳다며 기소한 일(105쪽 첫 줄 ~ ¶2), 그리고 카토에게 무엇이 도덕적 항복이었는지를 밝힌 문장(108쪽 ¶1)을 비교하여, 13장의 저자가 두 사람의 대비를 요약한 말 가운데 키케로 쪽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2장 또는 13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대비: Cato stood for commitment, while Cicero stood for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